

소사별

2024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42





문 : 文 / 기획특집

《평택총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 04 《평택총쇄》의 가치와 평택군수 오형묵
허경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 08 근대전환기 평택을 보여주는 창,
평택쇄언
한상우 아주대학교 교수
- 12 평택군수 오형묵의 조정,
도연명의 팽택이 된 팽성의 관아
구지현 선문대학교 교수

화 : 化 / 잇다

《소사벌》 연재

- 16 빛바랜 사진이야기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
- 20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 22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 26 우리지역 문화예술인
황선미 작가
- 28 평택을 품은 이야기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 32 경기도이야기 - 포천편
허혜경 포천문화원 차장
- 36 청소년들이 바라는 평택의 문화
공일영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장

소사벌
2024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42

2024년 10월 / 통권 제42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오종근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최희련, 강하늘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4년 10월 8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 2024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평 : 平 / 채우다
평택문화 이야기

- 40 평택호 여름요트교실
경영지원부
- 42 평택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한국전쟁과 평택’
박정인 평택시 박물관팀 학예연구사
- 46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의미와 가치
김재영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 50 독립운동가 원심창을 아십니까?
김창용 마름모 전시솔루션 대표
- 54 지속가능 발전 ‘평택환경축제’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58 평택예술제
김소영 (사)평택예총 사무주임
- 62 배로샌드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 66 복합문화공간 트리비움
문선희 트리비움 대표



택 : 澤 / 더하다
평택문화원 이야기

- 70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 74 사라져가는 단오의 풍경을 재현하다
이은진 평택시 SNS시민기자단 기자
- 78 진위향교 풍경달다
문화사업부
- 80 트롤리와 진화하는 평택시티투어
문화사업부
- 84 평택시 구술조사 사업 성과와
미래 토론회
한정은 평택시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88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김고운 웃다리문화촌 주임
- 92 소사별 화보
- 96 평택문화원 소개

《평택총쇄》의 가치와 평택군수 오횡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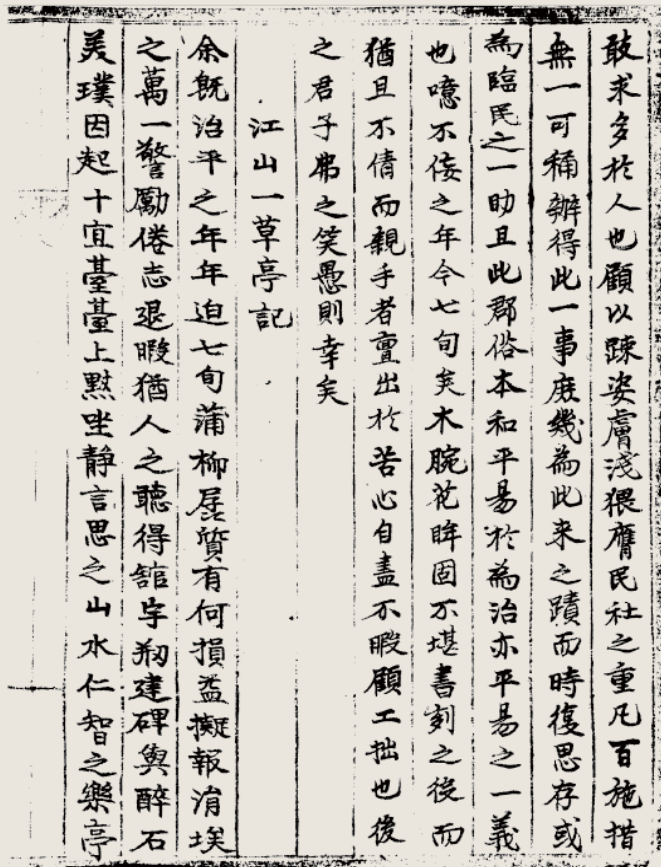
허경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조선시대에 평택현감(종6품), 군수(종4품)가 수백 명이나 부임하였지만,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군수가 바로 오횡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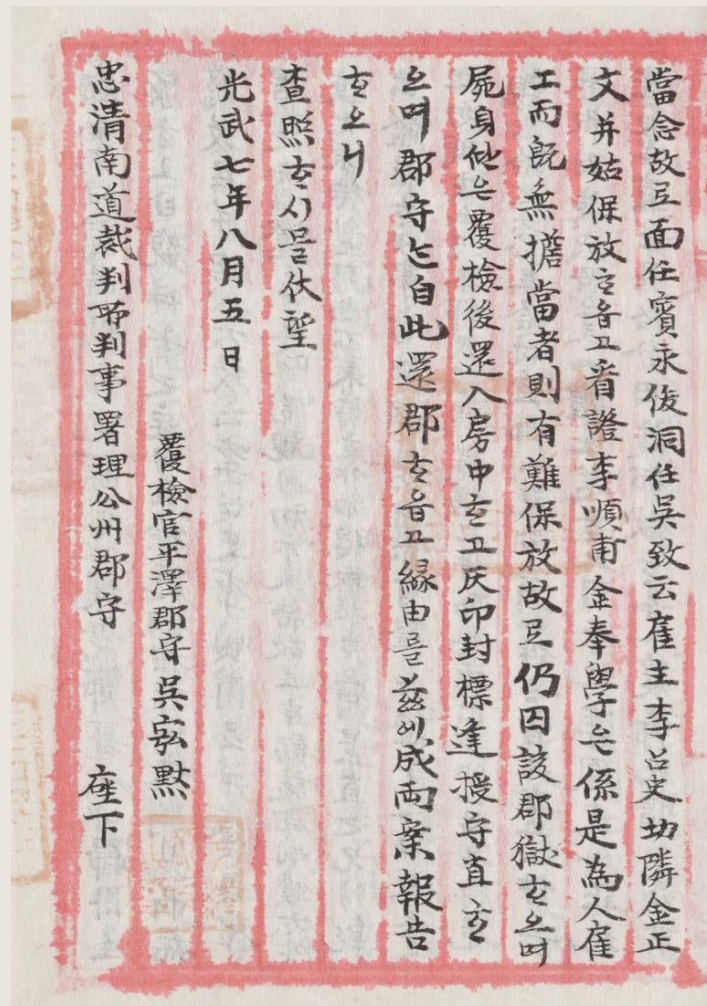
좋은 평가를 받아 오래 재직하였던 오횡묵의 평택 기록

오횡묵(吳宏默 1834-1906)은 평택에 재임하는 동안 종2품으로 승급되어 관직의 전성기를 누리고, 73세에 집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뒤인 10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호 가운데 택방(澤舫)과 만회당(晩悔堂)은 평택에서 지었는데, 자호에 대한 해설을 적은 <택방설(澤舫說)>과 <만회당설(晩悔堂說)>이 《평택총쇄》에 실려 있다.

정무일기 제목은 '쇄언(瑣言)'인데, '자질구레한 기록'이라는 겸양의 표현이다. 문집의 제목은 '총쇄(叢瑣)'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자질구레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겸양의 표현이다. 그는 평택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일기 1책, 시 2책(652제 799수), 산문 2책(178편)을 지었다. 4년 동



오횡묵이 초기집 정자 강산일초정을 세운 기록



오형묵이 충청남도 재판소에 제출한 보고서

안 하루에 한 편 정도는 일기를 쓰거나 시와 산문을 지었으니, 평택에 관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문인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평택군수의 이동이 잦아서 오형묵이 부임하기 직전에 김기중은 5개월, 박봉환은 2개월, 남만리는 3개월만에 갈렸다. 오형묵이 부임하던 1902년에 평택군수의 명단이 4명이나 걸렸으니, 만4년이나 평택군수로 재임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성공적인 목민관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과목으로 진사시에서는 시(詩)와 부

(賦)를 짓게 하고, 문과 종장에서는 사회 현안을 인식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對策)을 짓게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글짓기 시험을 치른 까닭은 수령에게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상의하달(上意下達), 백성의 여론과 지역의 상황을 나라에 전달하는 하의상달(下意上達)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후손이나 제자들이 모여서 유작을 수집하여 문집을 편집하였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

면 행정 관련의 문장들은 문집에 넣지 않았다.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횡목이 직접 편집한 《총쇄(叢瑣)》에는 목민관이 직책상 지어야 하는 다양한 문체의 글들이 모두 실려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모든 글을 자신의 분신이라 생각하여 문집에 넣기 원했던 것이다.

그는 평택군 동현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다. <가을날 여러 명승지를 방문하여 보이는 바를 시로 짓다[看秋日 訪諸名勝 賦得卽事]>라는 칠언절구 9수의 부제목은 ‘가을을 보다’, ‘경정리 홍응교의 집’, ‘노하포 이도사의 집’, ‘송하리 홍참봉 집’, ‘송하리 이감찰 집’, ‘송하리 이선비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송죽리 이감찰 집’, ‘안현 이선비 집’, ‘돌아오는 길’이니, 그에게는 추수하는 가을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주민을 만나는 모든 곳이 명승(名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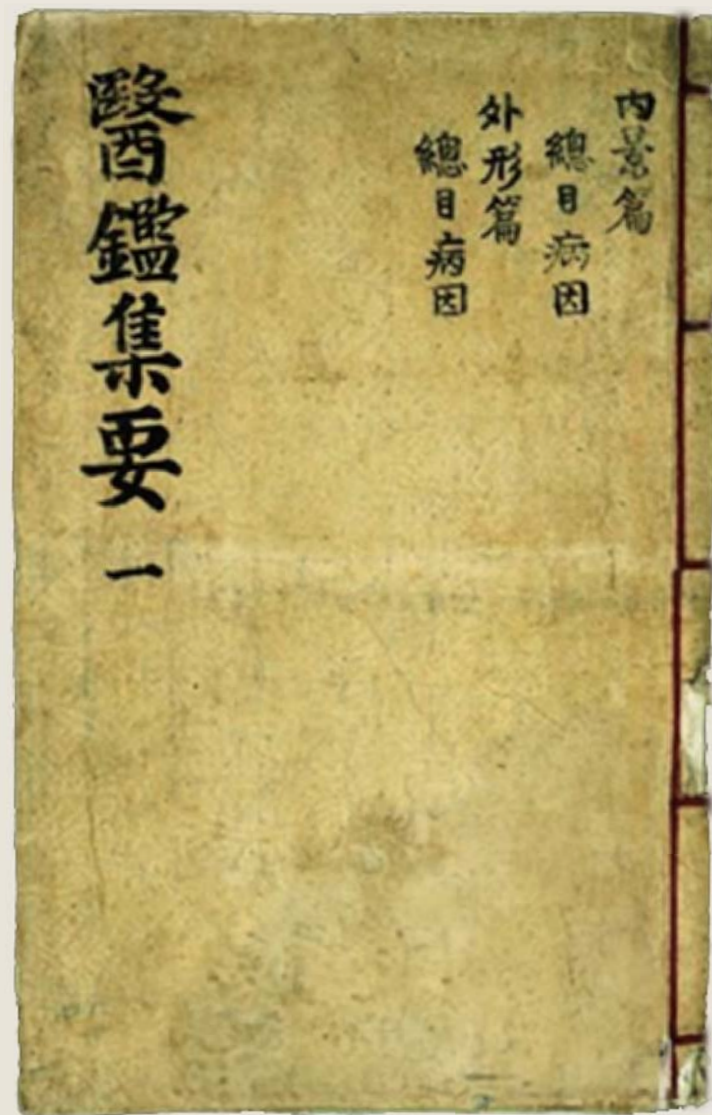
평택은 현감이 다스리던 가장 작은 고을이어서 관아의 규모가 작은데다가, 하나 있던 관가정(觀稼亭)마저 폐허가 되어 군수가 휴식할 곳조차 없었다. 오횡목은 평택에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틈이 날 때마다 관아에 정자나 누대를 설치하였는데, 전혀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십의대(十宜臺), 평이당(平易堂), 강산일초정(江山一草亭), 일섭원(日涉園), 오류관(五柳館), 소오헌(嘯傲軒), 춘수루(春水樓), 읍청루(挹淸樓), 읍취함(挹翠檻) 등의 누정과 정원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어 다양한 꽃을 심으며 주민들과 함께 즐겼다. 그의 기록을 분석하여 가상 공간에서라도 평택군청을 복원해보고 싶다.

평택을 발전시키려 애쓴 군수

재임중에 경부선이 놓여 기차가 평택을 지나가면서 물산의 유통이 원활해지자, 시장이 없던 평택에 시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물론 상인들과 일본인, 평택역 등이 주동 세력이었지만, 오횡목 군수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상급 관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민들이 신성포에 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청원하자 “주민들의 여론이 이와 같고 상인들도 상품 판매하기를 원한다고 하니, 이는 시도해 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된다.”고 허락하였으며, 군물포 주민 편재규(片在奎) 등이 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청원할 때에도 “상인들이 이익만 탐내고 공익은 뒷전으로 돌려 폐단만 나타난다면, 쓸데없는 일만 만들어내어 행정을 어지럽혔다는 죄를 짓는 셈이니 깊이 유념하여 한마음으로 함께하라.”고 당부하였다.

“신설되는 시장에서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을 일체 엄단할 수는 없지만, 심해지면 끝까지 다스려야 한다.”거나 “재물이 움직일 때 도둑이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인 형세인데, 신설하는 시장에 원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개중에는 수상한 자도 뒤섞일 것이다. 이를 철저히 주목하고 충분히 살펴보다가, 시간이 넉넉하면 평택군청으로 잡아 오고 급하면 일본 순사(巡査)에게 가서 고발하라.”는 등의 자상한 지침까지도 직접 써서 다들 읽어보게 하였다.

음주 도박, 공무원의 부조리, 절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바가지 요금 등,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중 경고하였다. 그는 평택의 시장 설치를 허락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성포 시장에 씨름장까지 설치하여 구경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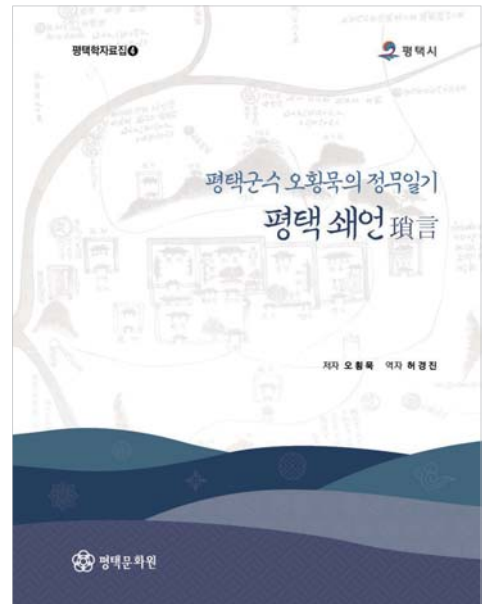
오형목이 평택군수 시절에 주민들의 치료를 위해 간추려낸 《의감집요》

이 모여들게 도와주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내부(內部) 회계 국장 이용복(李容復)에게 편지를 보내어, 행정구역 개편 때에 직산(稷山)을 평택군에 붙여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예전에는 평택이 직산에 합해진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통이 편해진 평택이 이 지역의 중심이 될 조건들을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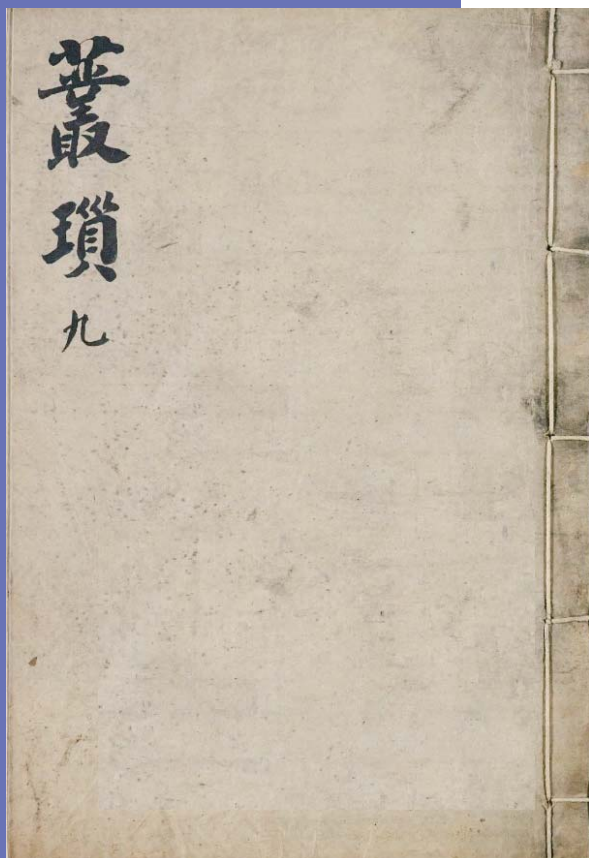
고 강조하였다. 1906년 9월 28일자 <대한제국관보>에 직산군의 상당한 부분이 평택군으로 조정된 내용이 보인다. 평택군을 큰 고을로 키워보려는 그의 노력은 두고두고 기억할 만하다. **소사벌**

근대전환기 평택을 보여주는 창 평택쇄언

한상우 아주대학교 교수



평택학자료집4-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쇄언



총쇄 9

19세기 말 조선이 닫았던 문을 열자 서구 열강과 함께 근대 문물이 들어왔다.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열강들은 전쟁도 불사했고, 살아남기 위해 1897년 조선은 500년 이어 온 국체(國體)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 근대의 물결이 몰아치고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는 20세기 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평택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최근 평택문화원에서 번역하여 발간한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쇄언》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기 직전인 1904년 6월 1일부터 1905년 5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의 기록이다. 저자인 오형묵은 무과에 급제하여 1880년대 후반부터 평택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지방관으로 경험을 쌓았다. 특히 그는 함안, 고성(固城) 등 당시 민란으로 어지럽던 지역, 또는 지도군(智島郡)

처럼 신설되어 지방관의 역할이 중요한 지역에 주로 부임하여 실력을 발휘했다. 유난히 부지런했던 그는 수령을 역임하면서도 방대한 분량의 일기와 시, 산문을 지어 남겼는데, 평택 쇠언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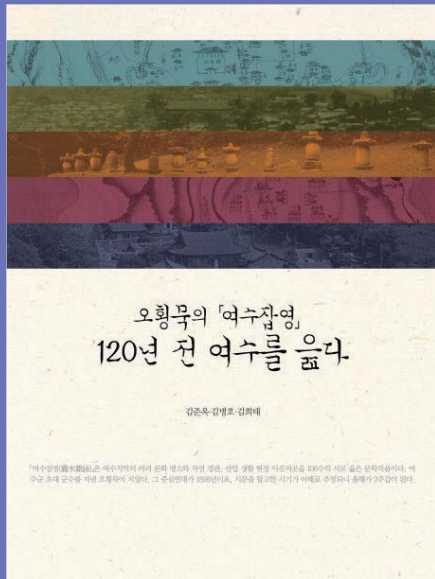
쇠언에는 20세기 초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급변하는 시기를 살던 평택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쇠언에서 보이는 평택 사람들의 삶은 고단한 것이었다. 궁방, 수어청 등 한양에 있는 중앙관청의 소유지는 물론 유력 정치인의 땅이 많았던 평택의 경제는 중앙 정계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불과 1년에 불과한 일기에서도 계속되는 가뭄과 수해 속에서 백성들은 살아남기 악명 높았던 환곡을 받아야 했다. 쇠언에는 평택 군청에 속한 하급 관속들의 갑질과 행패를 바로잡으려는 군수 오횡묵의 노력도 보인다.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횡묵이 나서는 일도 많았지만, 쇠언은 평택 백성들의 적극적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의 자치 규약인 향약(鄕約)을 만들어 지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러일전쟁에 데려갈 조선인 인부를 모집해달라는 일본 요구와 당시 전국적으로 횡행하던 도적때에 대한 대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택 백성들의 여론을 주도하던 면임(面任) 등 지도자들은 평택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또는 관속들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망한사(望漢寺, 현 자비사)에 모여 문제를 논의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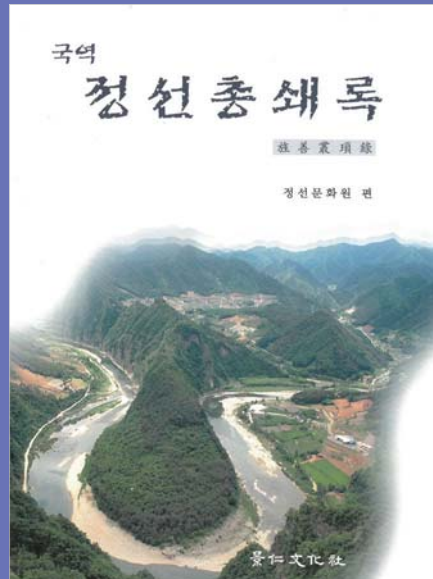
쇠언에는 평택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들은 자발적 노력도 보인다. 1904년 6월, 신성포(新成浦)에 사는 양도묵(梁道默) 등은 다음과 같은 소장을 군수 오횡묵에게 올려 시장을 열어줄 것을 탄원하였다. “시장을 열어 교역을 번창시키는 것은 민생과 크게 관계된 일인데, 고을은 존재하나 시장이 없는



함안군수 오횡묵 선정비



여수잡영(번역)



정선총쇄록(번역)



지도군총쇄록(번역)

곳은 오직 평택뿐입니다. (중략) 현재 마을의 형편이 쇠잔하여 장차 재정이 바닥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이는 바로 민읍의 생활과 크게 관계됩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할런지 그 계책을 도모해 보면, 시장을 열어 장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의 허가를 얻어 새 시장에 씨름장을 열어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쇄언은 경부선이 부설되고 처음으로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평택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철도 부설은 평택의 인적, 물적 이동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철도로 인해 일본 화폐가 평택에 통용되고

일본인들이 평택 사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군수 오형묵도 평택에 세워진 철도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러일전쟁의 전황과 일본의 소식을 듣곤 했다.

그러나 일본을 통한 근대의 도입은 대한제국 주권 침탈과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위한 물자 운송에 조선인을 부리기 위해 대한제국의 지방 통치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화폐 제도나 우편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여 이미 대한제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모습이 쇄언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기는 1904년 6월 1일 평택군수 오형묵이 일본 영사의 편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인천항 주재



오형묵 관련 각종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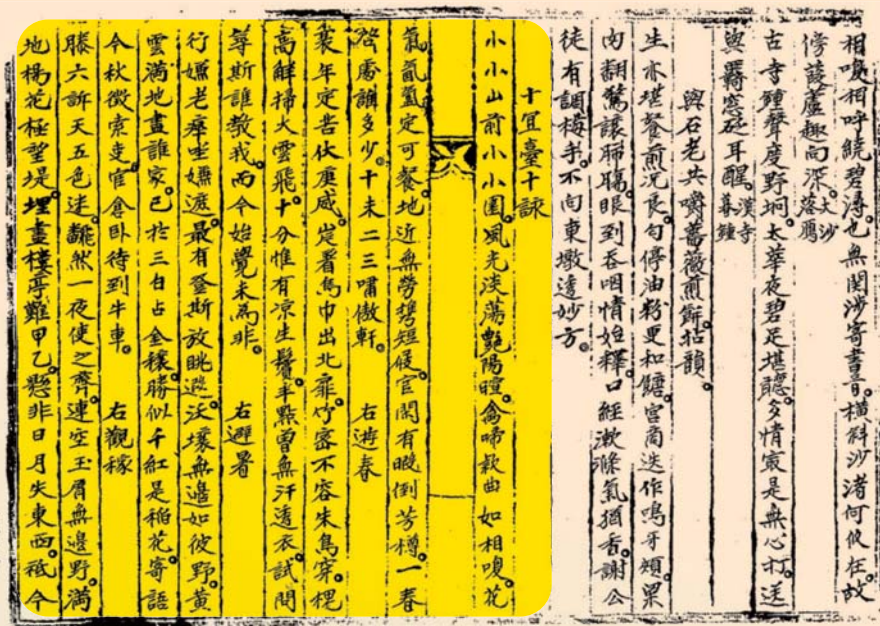
제일은행 십전권 건본(진품)

일본 영사는 편지를 통해 오형묵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일은행권이 근래에 위조된 것이 많아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쉽습니다. 해당 은행권 원본 양식을 부근의 각 군에 부쳐 보내니, 바라건대 이를 대조하여 증명해서 위조를 막으십시오.” 대한제국의 화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제일은행은 버젓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제작하여 유통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 지방관에게 위조를 막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쇄언이 1905년 5월 30일의 일기로 끝나고 불과 5개월 뒤인 1905년 10월 21일(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우리에게 을사늑약으로 알려진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였다.

이렇듯 유용한 자료인 평택 쇄언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오형묵이 채 1년도 군수를 지내지 않은 강원도 정선의 경우, 오형묵이 남긴 시를 이용하여 시비(詩碑)를 만들었고, 오형묵이 정선으로 부임하던 길을 따라 탐방로를 만드는 등 오형묵과 그의 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택은 오형묵이 가장 오랜 기간 수령으로 재직한 곳이면서, 마지막으로 관직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형묵과 그의 기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평택 총쇄를 바탕으로 지역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지역 역사콘텐츠가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소사별





오형묵 문집에 실려있는 '십의대십영'

평택 군수를 그만둔 해 10월에 사망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봉공(奉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경부철도가 개통되는 등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 군수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행한 오형묵의 행정적인 성과는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평택이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경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행적을 살펴볼까 한다.

부임하여 평택 군내를 돌아본 오형묵은 “팔무에 꽃이 하나 차지해 화초를 찾아도 수집벽을 채울 수 없네[八無花居一尋芳不盈癖]”라고 읊었다. 팽성 객사 쪽에 있는 부용산 정도가 높은 곳이었고 물은 군물리에서 끝나는 평택은 예로부터 “팔무”, 즉 여덟 가지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평평하게 넓게 펼쳐진 평야 지역이라 높은 산이 없고 그에 따라 기암괴석도

없었다. 또 숲이 우거지지 않으니 칙이나 화초가 드물고 물길도 하나가 있어 대단한 물고기가 없는 것이 당연하였다. 인구가 적은 곳이라 시장도 없다고 하였는데, 변화한 곳이 아니면서도 빼어난 자연경관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오형묵은 평소 자신에게 “花癖”, 화초에 빠져있다고 자처할 정도로 식물을 좋아하였다. 한양 시절 그는 공상소 감동으로 일하였는데, 공상소는 양잠을 목적으로 뽕나무를 심었던 곳이지만 서양의 각종 화초와 채소를 심어 왕실에 진상하기도 하였다. 이때 고종의 신임을 얻었던 그는 지방관으로 다닐 때도 종종 고종에게 불러가 화초에 관한 물음에 답변하거나 원하는 식물을 구해서 바치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평택은 그에게 아쉬울 법도 하였으나, 조경의 전문가답게 적극적으로 경치를 조성해 나갔다.



명나라 두근(杜堉)이 그린 도연명의 모습

그가 선택한 조경의 테마는 도연명이었다. 도연명은 중국 육조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그의 평담한 시풍은 당나라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벼슬이 바로 평택 현령이었다. 이곳에서 유유자적 술을 마시며 지내던 그는 상급 관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허리를 굽혀 절하기 싫다는 이유로 80일만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평택군의 팽성읍은 자연스럽게 도연명의 “팽택(彭澤)”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 때문에 평택군 관사의 이름은 오류선생이라고 불린 도연명의 호에서 따온 “오류관(五柳館)”이었다.

오형묵은 부임한 후 관사의 이름이 오류관이니 당연히 “취석(醉石)”도 있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도연명은 술에 취하면 집 앞의 돌 위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잤던 돌을 취석이라 하였다. 더구나 전해 오는 관사에 대한 기록에도 바위가 있다고 하였다.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결국 그는 실제로 “취석(醉石)”이라고 새겨진 돌을 발견해 냈다. 이 취석을 캐내서 남쪽 담장 아래 안치하였다. 그리고 짝을 맞추려 넓은 바위 하나를 구해 “향반(香盤)”이라고 이름을 짓고 동쪽 향나무 아래 두었다. 돌이 없던 평택에 멋진 돌이 두 개나 생긴 것이었다.

그리고 오형묵은 앞서 조경의 전문가답게 부용산 아래 동헌의 북쪽에 있는 언덕을 정리하여 주변 경물을 감상할 수 있는 대를 조성하였다. 이 대의 이름을 “십의대(十宜臺)”라 하였는데, 열 가지 일에 적당하다는 의미이다. 봄놀이, 피서, 추수 구경, 눈 감상 등의 계절별 풍경과, 부용산 구경, 바다 구경, 망한사 종소리 감상, 달 구경, 못 구경, 옛 성터 구경 등의 주변 경치를 모두 포괄한 열 가지 즐길 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평야라서 기암괴석이 없는 대신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바다까지 멀리 볼 수 있는 평택의 멋진 경물을 이곳이 모두 드러내 주는 것이다. 오형묵은 열 수의 제영시를 지어 이 십의대의 경물을 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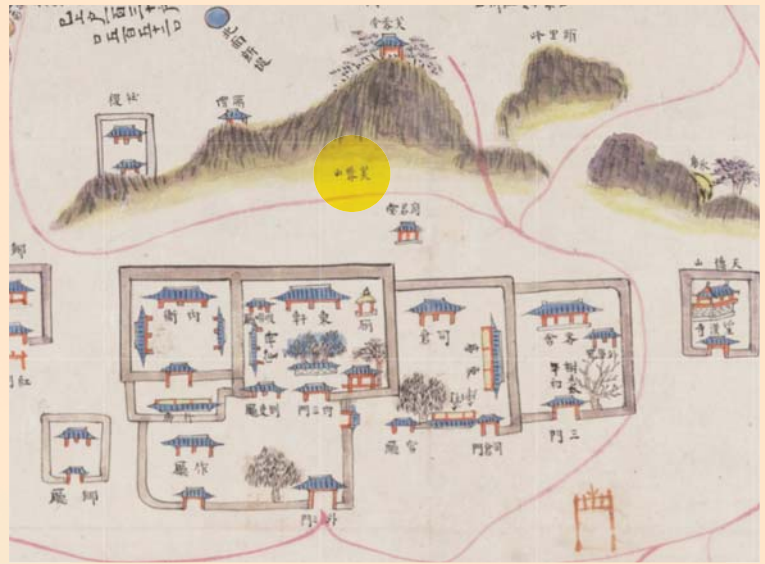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오형묵은 취석, 향반과 함께 십의대를 포함하여 이 일대를 “日涉園”이라 명명하고 중간에 일석원이라 새긴 돌을 두었다. 도연명처럼 날마다 거니는 동산이라는 뜻이었다. 재임시절 내내 그는 온갖 화초와 묘목을 구해 이곳 정원을 꾸몄다. 그리고 종종 벗에게 편지로 자랑하며 초정하기도 하고, 찾아온 손님들과 즐기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홀로 올라가 앉아 평택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오늘 아침 떠나는 한이 더욱 슬프니
 지난 일들이 아득히 느껴지누나.
 취석은 옛 글을 참조하여 다시 세우고
 향반은 좋은 자질이 살려서 새로 펼쳤네.
 정자와 누대는 지세에 따라 건축했고
 꽃과 풀들은 본성을 살려 재배하였네.
 역로로 가는 길 수고로울 필요 있으랴?
 돌아갈 때 거문고와 학만 가지고 기쁘게 가리라
 今朝離恨轉堪悲 往事悠悠便感時 醉石重酬參
 古蹟 香磐新舖藉良資 亭臺建築因其勢 花卉
 栽培得所宜 驛路何須勞跋涉 還携琴鶴喜相隨
 〈周覽庭園 一草一石 無非我精力所到 因感作〉

위 시는 평택을 떠나기 전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보며 오
 횡목이 지은 것이다. 그가 “풀 한 포기 돌 하나 내 정력이



부용산 근린공원 전경



평택현 관아 부쪽의 주산인 부용산(1872년지도-평택현)

당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처럼 스
 스로 발굴하고 조성한 곳이 일석원이었다. 취석과 향반, 십
 의대까지 하나하나 담긴 마음이 시구에 그대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연에서 평택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두고

거문고와 학, 즉 고아한 마음만 지
 니고 간다고 말하였다. 이 시는 평
 택에서 지은 마지막 시이자 그의 생
 애 마지막 시이기도 하다. 평택 군
 수로 재임하면서 백성의 신망을 얻
 는 한편 자신의 취미를 조경을 통
 해 마음껏 펼쳐 관아 주변에 새로
 운 경물을 조성하였으니 오횡목의
 여한도 없었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
 아가 내킨대로 살던 도연명을 떠올
 리며 마지막 관직 생활을 정리하였
 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소사별**

빛바랜 사진이야기 / 개인사 시리즈4 혼례



함 들어가는 날 1970년대 / 포승읍

‘함’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혼례 용품을 담은 상자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신랑 집에서는 혼례를 올리기 전날 밤에 함을 나르는 사람인 ‘함진아비’ 일행이 함을 지고 신부 집에 가서 전달하는 풍습이었습니다. ‘함진아비’는 주로 신랑과 친한 친구들이 역할을 하며, 적게는 서너 명에 많게는 열 명가량 참여한다. ‘함진아비’는 마른오징어에 두 개의 구멍을 내어 얼굴에 마스크처럼 쓴 후 함을 등에 지고 가며, 일행들은 신부 집 동네 어귀에서부터 “함 사

세요”라며 소란을 떨며 함 들어가는 것을 알린다. 이 과정에서 신부 집 가족들은 소란 없이 함을 들이기 위해 ‘함진아비’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다. 집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함진아비’가 발걸음을 땔 때마다 술과 음식, 돈 봉투로 내놓아야 함 들어가는 것이 수월해진다. 함에는 주로 예물과 예단이 들어갔으며, 주요 물목으로는 혼인 서약을 담은 편지 ‘혼서지’와 붉은색과 푸른색의 비단을 뜻하는 ‘청홍 채색 비단’, 노리개, 반지 등이 포함되었다.



전통혼례 1940년대 / 현덕면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식은 대도시에는 대형 웨딩홀에서 예식과 폐백, 뷔페, 사진 등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중매로 정해진 신랑 신부가 신랑 집 앞마당에서 혼례를 치르는 등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조선 시대에는 유교 사상이 바탕이 돼 사주단자와 혼례 절차가 중시됐고, 결혼은 가문과 가문 사이의 연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랑과 신부는 대부분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결혼이 성사됐다. 근대에 들어서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결혼식이 서양식 예복과 혼배 의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교회나 성당에서 진행되는 웨딩마치와 같은 서구식 결혼식이 유행했다. 최근에는 전통 결혼식을 복원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대부분 웨딩플래너를 통해 맞춤형 결혼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이후에는 결혼식 규모가 점점 더 간소화되고, 개인적인 가치와 취향이 반영된 결혼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승용차 1972년대 / 신장동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던 과거에는 신부의 경우 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다. 예식장 결혼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자동차 보급도 늘어나면서 결혼식을 마친 신랑 신부가 잘 꾸며진 승용차로 퍼레이드를 하고 온천이나 명소, 관광지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도 관례가 되었다. 평택에서 치러진 사진 속 신랑 신부도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승용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결혼식 후 승용차 퍼레이드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친 후, 주위 친지나 친구들이 동반

한 상태에서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는 전통이다. 주로 화려하게 장식된 자동차를 이용해 신혼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출발해 피로연장 또는 신혼여행지로 향하게 된다. 승용차 퍼레이드는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기념하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차량에 깡통이나 리본을 다는 등 장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특히 자동차가 행진하는 동안 경적을 울려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도 했다.



결혼식 피로연 1970년대 / 수원시

피로연은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 중요한 행사다. 사진은 평택사람들이 수원에서 열린 가족 결혼식에 참가한 후 국수와 잔치 음식이 차려진 곳에서 피로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 구성원이 많아 결혼식에 온 식구가 가서 국수 한 그릇씩 나누고 와도 흠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뷔페 가격이 만만치 않아 많은 식구가 가게 되면 혼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위한 잔치로,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끝내고

나면 하객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하하는 자리다. 과거 전통 피로연은 결혼식을 치른 집안에서 열렸으며,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결혼식장과 호텔, 연회장에서 피로연이 열리며, 뷔페로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식 음식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는 주로 국수, 구이, 전 같은 전통 음식이 제공됐다. **소사별**

글 · 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중 평택역과 그 일대-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이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중 평택역과 그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촬영 시기는 1940년을 전후로 추측하고 있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사진 위쪽(현 원평동)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역 아래쪽(현 비전동과 합정동)으로는 논이 펼쳐져 있으며 우측으로는 안성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흐르는 통복천과 오른쪽 위에서부터 흐르는 진위천은 왼쪽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안성천과 만나 서해로 흐르는 평택의 굽이쳐 흐르는 강의 모습이 잘 보인다.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유리건판(Gelatin Dry Plate)은 1871년 영국인 매독스(Richard Leach Maddox, 1816~1902)가 브롬화은 젤라틴 유제를 유리판에 도포한 건판에서 탄생하였다. 이후 근대적 방식의 촬영 매체로 활용된 유리건판은 20세기 초부터 공업생산물로서 본격적인 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38,000여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보관하던 것을 광복 후 인수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대체로 1909년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가 식민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전역과 만주 등지에 있는 각종 유적과 유물, 민속, 자연환경 등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유리건판과 비슷한 시야에서 촬영(2021)하였다. 평택역은 민자역사로 개발되었고 사진 위쪽(현 원평동)은 6.25 폭격이후로 재건하였으며 역 아래쪽(현 비전동과 합정동)으로는 논밭이었던 공간에 평택역오거리를 중심으로 상업 지구가 조성되었고 외곽으로는 주거지구가 자리잡고 있다. 안성천을 비롯해 진위천과 통복천을 간척과 수변정리로 강폭이 줄었으며, 고층아파트와 건물들로 잘 보이지 않는다. **소사별**



평택역 일원(1918년)



평택역 일원(2022년)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평택은 가을이다.

너른들, 굽이치는 강, 맑은 저수지, 다채로운 공원, 억새밭...

평택의 자연은 가을을 즐기기 제격이다. **소사벌**

고덕면 궁리 소풍정원





원평동 억새밭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핑크물리







오성면 창내리 코스모스밭

우리지역 문 / 화 / 예 / 술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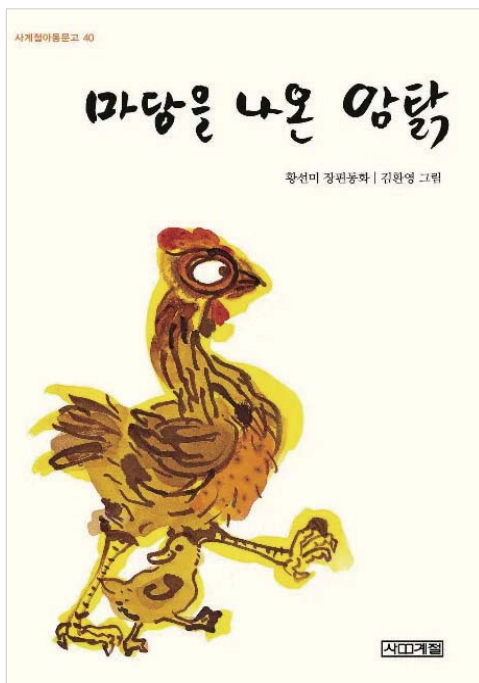
— 대한민국 대표 동화작가 —

황선미 작가

나는 일곱 살 때부터 평택의 아이였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농부의 딸로 살았던 풍요로운 유년기에 비해 평택에서의 삶은 파들려지고 상실감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결핍의 시절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대학 핑계로 결국 떠나긴 하였으나 나는 늘 팽

성면 객사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다른 어딘가를 꿈꾸었고, 길은 버리면서 가는 거라고 믿을 만큼 뒤돌아보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일곱 살 때 처음 만난 동네 아이들은 놀이에 낫선 아이를 끼워주는 일이 없었다. 남의 집 처마 끝방

에 얹혀살았던 탓에 집은 안심할 만한 데가 아니었고, 중학교 진학도 못하는 처지는 성장 과정에 친구 하나를 남기지 못했으니 혼자 버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었다. 버티는 방법이 바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노릇이었으니 돌이켜보면 가장 훌륭한 방법을 터득한 셈이었다. 책과 이야기 짓기는 그 위태로운 시간에 나를 지켜준 힘이었고, 부단히 벗어나고자 했던 객사리에서의 아동 청소년기가 내 문학의 근간이 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마당을 나온 암탉》



왼쪽부터 차례대로
《처음 가진 열쇠》, 《내 푸른 자전거》
《푸른 개 장발》, 《바람이 사는 꺾다리집》 표지

평택 객사리에서의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이 바로 《처음 가진 열쇠》와 《푸른 개 장발》, 《내 푸른 자전거》 그리고 《바람이 사는 꺾다리 집》이다. 이 작품들에는 우리 가족의 신산스러운 타향살이가 고스란히 담겼고, 작품이 출간될 때마다 나는 가족들에게 무한히 죄스러웠다. 독자에게 문학이란 혹시 낭만적일지 몰라도 작가에게는 상처를 헤집어 원인을 봐야 하는 노릇이므로 가족의 슬픔까지 건드려야 하는 잔인한 짓이기도 하다. 《바람이 사는 꺾다리 집》을 집필하는 문제가 특히 그랬고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가족 누구도 보지 않기를 바랐을 만큼 조심스러웠다. 이 작품은 새마을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70년대가 배경이다.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입장마다 다를 터, 어린 나에게는 국가가 소시민에게 벌인 폭력에 불과했다. 집을 잃어 춥고 슬프고 무서운 시간이 끝내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었으나 가족이 추위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작가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나는 오래전 객사리를 떠났고 여전히 떠나온 길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의 문학적 내용은 아직도 그곳에 닿을 내리고 있다. 결국 아동 청소년기가 어른을 키워내기 때문일 거다. 아마도 평택 객사리에서의 삶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 **소사벌**



평택을 품은 이야기 우리말을 지켜준 이무기 진위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연구사

세월이 흐르고 명륜당에는 더 이상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가끔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에게 지내는 제사만 이루어질 뿐이었어요.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국권을 빼앗긴 이후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이무기 진위는 대성전을 청소하고 명륜당에 남은 책을 보고 또 볼 뿐이었어요.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참 좋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제라도 친구들처럼 승천해야 하는 걸까?”

그때 진위향교 외삼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정말 여기서 우리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럼,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유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

이었단다. 저기 위에 보이는 명륜당에서 한글 수업을 하자꾸나.”

선생님과 학생들은 명륜당에 올라가 문을 열고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눈을 피해 한글을 몰래 배우지만 언젠가 우리 땅에서堂堂하게 우리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 란다.”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학생들은 작게 목소리를 내며 한글교재를 읽어 내려갔어요.

가가거거고교구구...

이무기 진위는 학생들의 글 읽는 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학생들 앞에 나타나고 말았어요.

“아이코 깜짝이야”

모두가 놀라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글 읽는 소리가 반가워서...”

모두가 크게 눈을 뜨고 진위를 반히 쳐다봤어요.

진위는 재빨리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진위향교와 진위천을 지키는 이무기 진위라고 해요. 평소에는 진위향교 느티나무에 스며들어 있어요. 글 읽는 소리가 들려 느티나무에서 나와봤어요. 혹시 저도 한글이란 걸 배울 수 있나요?”

선생님은 진위에게 한글교재를 주면서 말했어요.
“그럼 원하면 누구든 우리글을 배울 수 있단다”

이무기 진위는 명륜당에 앉아 학생들과 함께 한글을 공부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난 뒤에는 ‘진위’라는 이름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륜당은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향교에서 학생들이 몰래 한글을 배운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일본 순사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누가 이 땅에서 일본어가 아닌 한글을 배운다는 거야 당장 찾아가 혼쭐을 내주겠어”

일본 순사들은 총을 챙겨 진위향교를 향해 달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일본 순사가 오고 있어요!"**

몰래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함께 공부하던 이무기 진위는 재빨리 앞으로 나와 날아갈 준비를 했어요

“모두 내 몸을 타고 빨리 빠져나가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무기 진위 덕에 향교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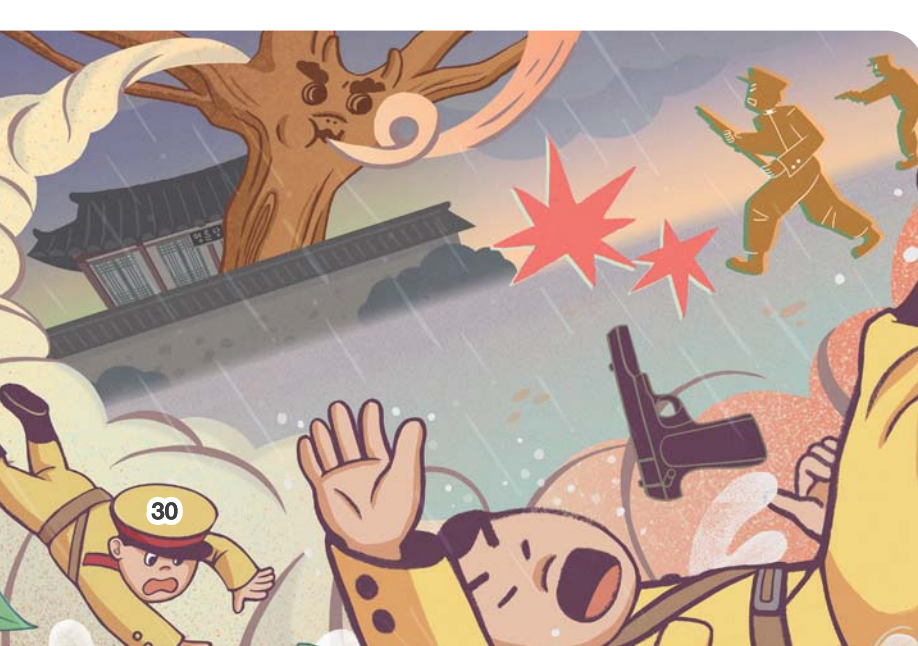
혼자 남은 진위는 재빨리 느티나무에 스며들었어요.
일본 순사들이 홍살문을 지나 강제로 외삼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외삼문을 열고 들어오자 큰 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사들이 명륜당으로 올라가

는 계단을 오르려 하자 이무기 진위는 느티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 계단을 막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워진 일본 순사들은 마구잡이로 총을 쏘았어요.

진위향교에서 총소리가 나자 진위는 화가 났어요.



**“감히 누가 신성한 향교에서
총소리를 내느냐”**

이무기 진위는 큰 비바람을 만들어 일본 순사들을 진위천으로 날려버렸어요.

진위에게 호되게 당한 일본 순사들에 의해 진위향교에 무서운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은 무서움에 진위향교 주변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무기 진위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진위향교에서 안전하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진위향교에서 한글을 배웠던 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운동가가 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어요.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독립운동가가 된 학생들은 다시금 진위향교 느티나무에 모여 이무기 진위의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맹세했어요. **소사벌**



2021년, 평택문화원은 진위향교 느티나무 설화를 한 편의 동화로 풀어내 '느티나무가 된 이무기 진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인형극 등 여러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이무기 진위'를 진위향교 대표 캐릭터로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평택문화원은 진위향교 설화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말을 지켜준 이무기 진위'를 새롭게 창작하였습니다. 평택문화원은 앞으로도 진위향교를 비롯해 평택의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과 만나겠습니다.

경기도이야기 - 포천편

지역을 담은 술 포천 막걸리

허혜경 포천문화원 차장



어느 지명을 떠올리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경기도 북단에 위치한 포천을 대표하는 “막걸리”가 그렇다. 탁한 유백색의 막걸리는 그 달달한 맛과 향으로 대중을 사로잡는다.

우리나라 주세법¹⁾에 의한 주류의 종류 중 발효주류의 탁주에 속하는 막걸리는 쌀 뿐만 아니라 밀, 찹쌀, 옥수수 등 다양한 곡물이 원재료로 쓰인다. 발효된 원재료들을 가라앉혀 맑게 떠내면 이것이 청주. 가라앉은 술지게미²⁾에 물을 넣으며 마구(막) 걸러내거나 막(방금) 걸러냈다 하여 “막걸리”라고 불렀다 한다.

고서에서 찾은 막걸리의 흔적



《고려도경》

막걸리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곡물을 재료로 하다 보니 농경이 발달하고 발효 기술이 생겨나며 자연스럽게 탁주인 막걸리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서긍의 《고려도경》³⁾에는 “고려 사람들은 대개 술을



전통 술상

즐긴다. 허나 양온서에서 생산된 고급 술을 마시기 어려워, 맛이 박하고 빛깔이 짙은 술을 마시는데 마셔도 별로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값비싼 청주가 아닌 막걸리가 삼국시대로부터 서민들에게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술을 빚는 방법을 기록한 《음식디미방》, 《산림경제》 등의 문헌도 발견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흉년에 금주령을 어기는 백성이나 양반을 엄히 다뤄야 한다. 하지만 탁주는 요기가 되니 그냥 넘어간다”라는 기록을 보면 기근이 심한 시기에 굶주린 백성들을 달래주는 푸근한 술이 바로 막걸리였다는게 짐작된다. 천상병 시인도 「막걸리」라는 시를 통해 “막걸리는 밥이나 마찬가지”라고 노래하지 않았는가!

이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술 막걸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일상에 가까이 스며왔다. 농사 시작 전에는 막걸리를 올려 풍년을 기원하고, 가을걷이가 끝나

1) 주류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령으로 1949년 10월 21일에 제정·시행됨.

2) 술을 빚은 후 술을 짜내고 남은 술 찌꺼기

3) 송(宋)나라 사절 서긍(徐兢)이 고려 인종 원년(1123)에 고려에 머물며 저술한 견문록

면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데 활용되는 등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청정 포천에서 태어난 포천의 막걸리

막걸리의 기본 재료는 곡물, 누룩, 맑고 깨끗한 물이다. 유난히 포천 지역에 막걸리 양조장이 많고 막걸리가 유명한 이유는 주재료 중 하나인 물에 있다. 산지 면적이 전체 포천시 면적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기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이 막걸리를 빚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포천의 막걸리는 이동막걸리, 일동막걸리, 내촌막걸리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 이동주조 이동막걸리의 창업주는 1957년 포천 백운산 자락의 물맛에 반하여 포천시 이동면에 양조장을 차렸다. 군부대가 많은 포천 지역의 특성상 군인들이 즐겨 찾던 이동막걸리를 군 제대 후에도 그 맛



이동막걸리

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하여 입소문으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300여 개가 넘는 술 향아리에는 백운산 200미터 암반수(巖盤水)⁴⁾를 사용한 막걸리가 익어가고 있다.

4) 땅속의 큰 바위 아래 있는 물.

산사원의 세월랑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암반수는 포천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강암과도 연관이 깊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고급건축재로 쓰인 포천의 화강암. 화강암이 사라진 폐채석장을 문화·교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포천아트밸리의 천주호



폐채석장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포천아트밸리 천주호

샘물은 1급수라고 하니 그 빛깔만 봐도 물 좋은 포천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포천에는 전통술 갤러리 '산사원'도 있다. 인공감미료 없이 깨끗한 포천의 물로 막걸리를 빚고 있고, 막걸리 외에도 다양한 주류를 개발하고 있으며, 술 박물관과 시음판매장도 운영되고 있어 포천아트밸리,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산정호수와 더불어 '포천 여행지' 순위에 올라있다. 특히 포천의 일교차가 큰 날씨를 활용하기 위해 야외에서 술을 숙성시키고 있는 큰 술독이 늘어선 '세월랑'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포천의 읍면동을 브랜드화하는데 일조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포천의 물과 곡식들이 각 주조 마다의 비법을



포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술

거쳐 다채로운 맛을 가지게 된 포천의 막걸리들. 전통 제조방식과 현대의 발효방식을 접목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포천의 막걸리는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문화정서를 담고있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주이다.

주막에서 막걸리 바 까지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도 포천막걸리 뿐만 아니라 지평막걸리, 가평잣막걸리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녹여낸 막걸리가 출시되어있고, 주막에서부터 대포집을 거쳐 현재의 막걸리 바(Bar)로 이어져 온 막걸리는 한층 젊어진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하고 있다.

보얀 막걸리 뿐만 아니라 유자, 딸기, 포도, 밤 등 지역특산품을 뽐내는 듯 다채로운 빛깔의 막걸리가 속속 눈에 띄는걸 보면 막걸리는 역시 '현재진행중'임이 틀림없다.

우리 정서와 시대상을 품고 있는 막걸리, 지나온 과거의 생활방식과 역사, 그리고 현재의 술문화까지도 아우르는 막걸리, 그 한잔에 끊임없이 지역의 문화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소사별**

청소년 들이 바라는 평택의 문화

공일영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장



평택은 그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이다. 평택향교, 진위향교와 심복사, 만기사 같은 사찰과 기독교 문화 유산 등과 같은 역사적인 유산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바라고 향유하고자 하는 평택의 문화는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바라는 평택의 문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살펴보자.

첫째,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아야 한다.

평택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넓은 평야와 바다를 가지고 있는 천혜의 풍요로운 지역으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적을 자랑한다. 그중 향교는 평성에 위치한 평택향교와 진위에 위치한 진위향교가 대표적이며 향교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교육기관으로,



제6회 꿈울림 축제

공자와 유학자들에 대한 문묘 기능에 더해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다. 또 다른 유서 깊은 장소인 심복사는 현덕면 광덕산에 있는 고려시대에 세워진 사찰로, 그 건축 양식과 문화재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향교에서는 전통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절과 공경을 통한 자기애를 심어주어 인성교육의 기본적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심복사 같은 사찰에서는 명상과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역사를 체험하

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사에서 유명한 사찰음식은 현대인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현대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 문화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수준 또한 세계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갈 정도로 높아졌다. 음악, 패션, 엔터테인먼트,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 평택의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평택의 청소년들은 K-팝과 힙합, 인디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즐기며,



제20회 평택시청소년영상제 미디어 교육



평성청소년문화의집 PS 해피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패션 트렌드 역시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또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혼자만의 무대가 아닌 함께 공유하며 협업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평택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심어주는데 문화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작은 무대나 버스킹 존을 마련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창작 콘텐츠 경연 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물 축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물 부족 국가라고 하면서 물을 아껴 쓰자는 구호만이 있을 뿐 하루 축제를 위해 버려지는 물을 보면 안타깝다. 그 예산을 청소년들의 문화 창출과 공연, 전시 등에 투자

한다면 미래가치로서의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평택의 미래 방향성을 알아야 한다.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는 평택은 전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젊은 인구 유입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청터꿈터 진로체험

평택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미술 공간이나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문화 축제나 예술 경연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최근 미술관이나 작품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카페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문화 체험과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된다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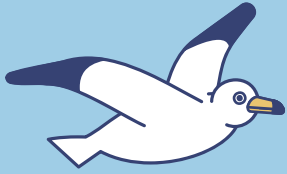
또한, 평택의 미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 예산 참여제 등 평택시청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평택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 그러한 특징을 이해한 평택의 청소년들이 바라는 문화는 전통과 현대, 도시와 농촌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평택의 역사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평택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평택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활기찬 문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소사릴**

평택의 문화유산인 팽성읍객사를 답사하는 평택 청소년





평택호 여름요트교실

경영지원부



“어떡해 올여름엔 너무 바쁘는데 그 어디라도 꿈쩍하지 못할 거 같아. 수평선 하늘 닿은 푸른 바다가 너와 날 부르고 있는데”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오아시스’라는 곡의 가사다. 우리는 ‘여름’하면 바다, 계곡 등 시원한 물놀이를 떠올릴 것이다. 평택에도 노래 가사처럼 하늘과 맞닿은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본다.

평택시가 주최하는 ‘2024 평택호 여름요트교실’은 경기도 유일의 요트선수단인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이 시민들에게 건전한 수상레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능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평택호 여름요트교실은 매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습비는 무료이며, 강습내용은 요트장비 소개, 요트·레저고무보트 체험 등으로 평택호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더 나아가 수상레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이론과 실습도 배울 수 있다.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요트 체험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소사별**



심폐소생술교육



요트체험 전 준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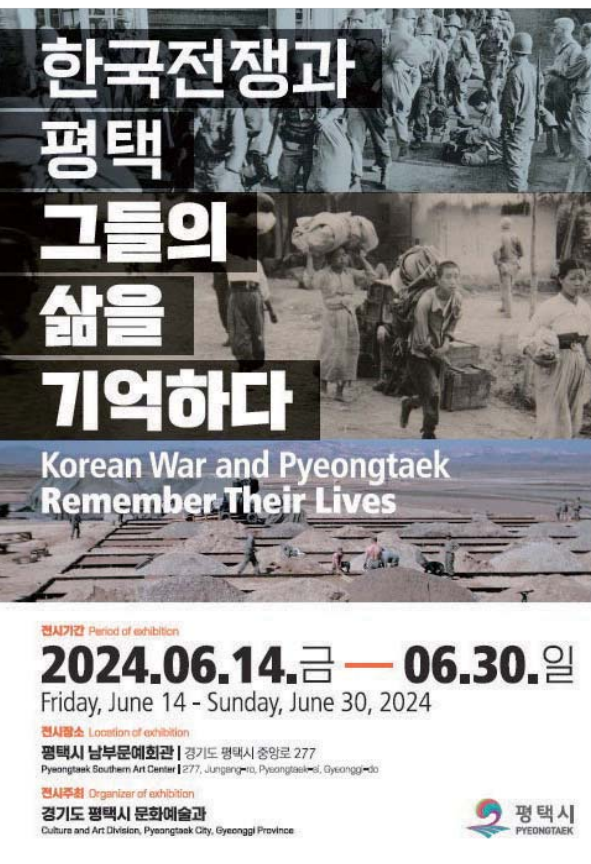
요트체험



평택박물관 상반기 기획전

한국전쟁과 평택 : 그들의 삶을 기억하다

박정인 평택시 박물관팀 학예연구사



2024 기획전시 포스터

[한국전쟁 74주년,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이유]

지금으로부터 74년전 평화로웠던 한반도는 38도선 전역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한국전쟁은 3년동안 지속되었고,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피난을 떠났으며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서울이 3일만에 점령되고 어느덧 한반도의 비일상적인 삶은 일상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평택과 한반도에서 진행되었던 한국전쟁의 과정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전후 평택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로 전쟁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억되길 바라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택에서의 한국전쟁]

많은 비극을 가지고 온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직후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함락된 서울을 탈환하고,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미군과 유엔군의 투입을



한국전쟁 당시 한국 노무단
(© 한국지원단 대대 Korea Service Corps Battalion)



카투사의 훈련모습
(© 한국군지원단대대 ROKA Support Group)

결정하였습니다. 미 지상군으로 투입되었던 존. H처치 준장은 “가능한한 북방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가능한한 북방지역이란 어느 곳을 뜻하는 것일까요? 존.H처치 준장의 가능한한 북방지역이란 평택과 안성을 잇는 37도선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한국전쟁의 초기 상황을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한국전쟁의 영웅들]

한국전쟁에는 많은 영웅들이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중 이번 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것은 카투사와 한국 노무단(현 한국군지원단 대대, Korean Service Corps, KSC)입니다.

“만일 한국 노무단이 없었다면 최소 10만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여야만 했을 것” 한국전쟁 당시 미 8

군의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벤 필렛(James Alward Van Fleet) 사령관이 했던 말입니다. 한국노무단은 전선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던 시기에 탄약, 연료, 식량 등을 보급하기 위해 결정된 부대로 일명 지게부대라고 불렸고, 그 모양이 알파벳 A를 닮아 A 특공대(A Frame Army)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전쟁의 영웅인 카투사는 한국의 지형과 문화가 익숙하지 않던 미군들에게 한국과 미군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징집조건 중 하나는 ‘어깨에 소총을 걸었을 때 땅에 닿지 않는 신체’였습니다. 급박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소한의 군사훈련만 받은 채 전장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Free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반도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 폐허가 된 평택역 (© 국가기록원)

[한국전쟁 이후 평택 주민들의 삶]

한국전쟁 중 평택주민들은 많은 삶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잦은 공세와 수세가 반복되며 피난과 복귀를 반복하던 평택의 주민들은 농지, 가옥 등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주민들은 일상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미군은 각지의 전선을 지원하는 공군부대의 주둔지로 평택시 송탄면 신장리 일대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52년 7월 ‘오산리 AB(Osan-Ni Air Base)’가 건설되었고, 이는



1950년 7월 7일 평택 부근 피난민 행렬 (© 국가기록원)

1954년 항공전술본부가 재배치되고 주한미공군의 허브 기지가 되면서 1956년 그 명칭을 오산 AB로 변경하였습니다.

한국전쟁과 오산 AB의 건설로 평택 주민들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미군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마을의 경관이 현대적인 경관으로 변화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 평택은 한국전쟁을 비록하여 많은 변화와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공존하며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평택이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명암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삶의 현장이나 터전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사별**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의 의미와 가치

김재영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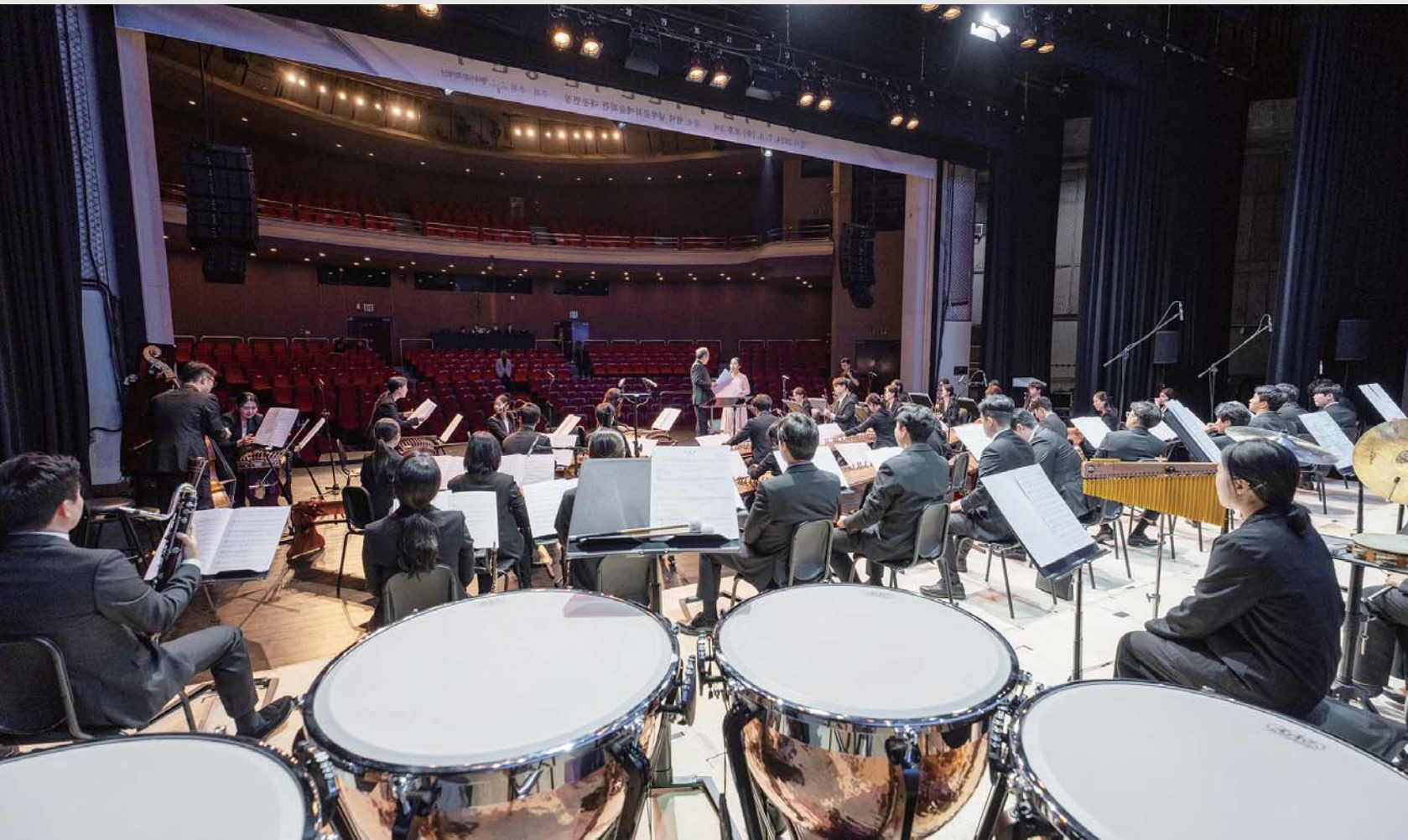
평택시민의 염원인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 국내·외에 우리 평택시의 브랜드를 알리고 시민에게 양질의 연주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외교사절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 창단과 운영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 대다수의 지방 자치 단체가 예술단을 운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영 상임지휘자



창단식 리허설 사진

지역의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인구 증가 추세와 함께 경제, 산업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시는 무엇보다 시민의 문화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평택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 시민의 문화적 소양 등에 가장 적합한 예술분야는 우리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적 활동이 가능한 국악관현악 장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가슴에 스며있는 화노·애락의 다양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해시킬 수 있고 정통 국악부터 현대적 재해석과 타 예술 장르와의 협업 등이 자유로운 점 역시 국악관현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원 단체사진

또한 악성 지영희 선생의 고향이자 우리 국악의 본산인 평택시는 미래 대한민국 국악의 새로운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앞으로 평택의 소리, 경기의 소리, 아시아의 소리를 기치로 국내 20여 개 국악관현악단 중 하나가 아닌 국악관현악단의 기준이 되는 오직 하나의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범훈 예술감독



창단식 단체사진

이를 위해 양질의 공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공연 접근성이 부재한 공간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연주회, 타 지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한 교류 연주회 등 공연, 교육, 문화복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소사별**

독립운동가 원심창을 아십니까?

김창용 마름모 전시솔루션 대표



2023년 10월의 늦은 저녁, 우리는 '원심창'을 '제안요청서'를 통해 다시 접했다. 기념관이 들어설 곳은 평성 실내체육관 2층, 낯선 독립운동가의 기념을 어색한 공간에 담아야 하는 숙제 같은 과업을 만났다. 2023년 7월에 진행된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 선생과 원심창 의사의 서훈 상향운동'으로 처음 알게 된 '원심창'. 그를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 이름에서 느껴지는 풍요만큼 평택은 출신 인물이 많다. 하지만 '원심창'이라는 이름은 낯설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념으로 필요와 불필요를 나누고 모든 공과를 평가하여 사실의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있었던 '서훈 상향운동'은 평택



독립운동가 원심창 삶

의 '문화 거버넌스'가 힘차게 추진해 온 '역사바로잡기 운동'이고, 그 중요한 맥락에서 [평택 최초의 인물 관련 기념관]이 '독립운동가 원심창'이라는 것은 이곳이 기념관을 넘어 평택의 역사바로잡기 운동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념관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곳, 팽성실내체육관 2층, 어울리지 않는 공간의 극복은 관건 중 하나였다. 기념관이 나 추모관으로 계획된 건축물이나 공간이 관람객이 방문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 체육관, 2층의 한쪽은 어색함을 넘어 불편하다. 더 중대한 것은 예의 건축물이나 공간이 기능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반 설비가 구축되어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시연출의 고민에 더해, 전시 및 전시품 수집이나 보존, 설비(전기나 소방 등의 기반)의 한계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계획을 진행해야 했다.



원심창기념관 입구

콘텐츠와 자료는 충분했다, 건립 사업에 앞서 진행한 용역 '원심창 기록물 조사·연구 사업'이 막바지에 있어서 기념관 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통일일보>를 발행하는 통일일보사에서 기증한 265종의 유물들이 있었다. 독립운동가, ана키스트, 그리고 통

일운동의 흔적과 업적들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심창'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삶의 내용을 정리하고 배치했다. 자문단은 모든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상을 보는 시선에서 비롯되는 오해나 오류가 있지 않도록 세션을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목에서부터 설명문, 전시 품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것 등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폈다. 전시 이야기의 구성은 평택에서 시작해 일본, 중국 3국

을 넘나드는 그의 삶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인생과 조국의 역동이 하나임을 반영했다. 연대기적 흐름의 선택은 '원심창'의 활동, 조국의 파란만장한 시절과 궤를 같이하여 전시 전체의 흐름이 되었다. 관람객은 그의 인생이 투영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 일본에 거주하는 민족의 삶과 애환, 통일에 대한 과거와 현재, 지향점까지 통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념관 '맺음 공간'에 전시된, 독립의 갈망을 가슴에 새기듯 필사한 독립선언서는 원심창의 진심을 본받아

새기고 기림을 은유한다.

전시 공간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담을 것, 그리고 많은 관람객을 담을 수 있어야 했다. 확보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많은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번 과업에서 주어진 작은 공간에서 최적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설비의 증설이 불가한 상황은 습도 조절을 위한 창과 면하는 곳의 공간벽 구축, 전시 면적의 확보를 위한 중간벽은 관련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높이를 조정했다. 진열장의 규격은 주요 전시품의 크기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하여 제작하였다. 전시 이야기의 구성이나 확보한 전시물을 담기에는 다



민족운동에 투신



원심창의 일대기 독립운동

소 부족한 공간이지만 중앙을 비워
둔 것은 더 많은 관람객을 담기 위한
결정이었다. 학교 단위의 단체관람을
위해 배려한 것이다. 체육관 2층의
한쪽에 있는 기념관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육관 입구에 기념관임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고 1층 홀, 계단과 기념관 홀까지 이어지는 동선에는
안내 간판을 두었다. 특히, 처음으로 접하는 기념관 벽에는
친근한 만화풍의 '원심창인물패널'과 가까이 오면 자동으
로 흘러나오는 '원심창조가'는 '원심창'에 대한 낯설과 장소
의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단의 세심한 배려였다.

이렇게 '원심창기념관'은 기획되었고, 만들어졌다. 평택
문화 거버넌스의 결과물이다. 특별한 것은 기획부터 개관
까지 꼼꼼히 살피고 지원한 자문단이다. 일반적인 사업에
서 이뤄지는 '행정을 위한 자문'이 아니라 '원심창'을 알고,



캐릭터와 조가를 배치하여 방문객 알림기능과 유도

'원심창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에 집중한 행정, 지식, 사랑의
정점이었다. 박성복소장님, 성주현교수님, 김명섭교수님,
원형재회장님, 이민호지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심창기념관' 개관의 의미는 2023년의 10월 우리가
'원심창'을 과업으로 접한 어색했던 시작점과 같다. 이제 모
두가 그를 알고, 기리고 계승해야 한다. '원심창기념관'에서
쉽게 읽히고, 밝게 보여,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독립운동가 원심창의사'의 크고 올곧은 뜻이 담긴 '제대
로 된 [원심창기념관]'이 들어설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소사별**

원심창 기념관 이용

관람시간 10: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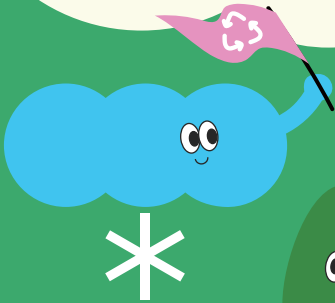


원심창의 신념 통일운동



지속가능 발전 평택환경축제 최초 넷제로 net_zero 실천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알뜰나눔장터



재활용 간판 대상 부스



수소전기차 전시, 평택이포토존



부스 재활용 간판 시상식



SDGs 퍼포먼스



아카펠라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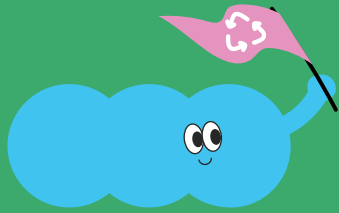
올해로 24년차를 맞는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거버넌스 추진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평택시의 민관협력기구입니다.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위원과 시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택시지속가능발전대학과 알뜰 나눔장터, 그리고 시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평택환경축제】가 있습니다.

평택환경축제는 2024년 현재까지 스무번째 개최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넷_제로(net_zero, 탄소중립)(이하 '넷_제로')의 미래를 향하여 개인 행동을 위한 UN 캠페인 ACT NOW'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활 속 실천의 동기 부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다채로운 행사로 참여율 향상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로 넷_제로 실천에 앞장서는 환경축제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사용, 재활용(이면지 등)을 이용한 부스별 홍보물 게시, 생분해 종이 백드롭 제작, 행사장 내 다회 용기 사용 의무화를 통해 1회 용품 지양, 전기차 및 수소차 전시를 통한 넷_제로 인식 제고 및 실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별 홍보물 게시의 경우 종이 박스 또는 버려지는 물품 등을 활용하여 체험에 따라 특색있는 홍보 게시물을 만들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부스 간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하 'SDGs') 표현성, 재활용성, 창의성, 매력성으로 심사기준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생분해 비닐봉투를 활용한 시민과 참여자의 직접 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30%이하로 줄이고, 시민 의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택환경축제 개막식에서는 SDGs퍼포먼스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참석한 내빈들에게 SDGs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높여 주었으며, 아카펠라팀의 공연으로 무반주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넷_제로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평택환경축제를 개최하기 전 사전설명회를 통해 넷_제로의 의미를 설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켰습니다.





미술대회



미술대회 시상식

금년 평택환경축제에 참여한 시민과 관계자의 시선을 이끈 것은 SDGs 스탬프 투어를 통해 자칫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인식을 가깝게 만들고, 수소전기차 체험관 운영, 어린이 미술대회, 재생에너지 체험, 알뜰나눔 장터 등 다양한 체험으로 시민의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환경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미술대회는 매년 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SDGs를 주제로 환경, 교육, 평등, 건강, 청정 에너지와 관련한 그림을 제출하여 어린이 모두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치를 되돌아보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술대회 심사에는 협의회 김덕일 회장과 손의영 정책자문단장, 이흥연 정책자문위원(평택대학교 교수), 박성복 정책자문위원(시사신문 대표), 한국미술협회 안대현 회장과 배춘효, 이복자 회원, 평택시 미래전략과가 참여하였으며, 총 11개 부문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심사 기준으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과 부족하지만 참신하고 신선한 그림을 우선적으로 선정’으며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응모작은 기술적인 표현력보다는 어린이다운 순수한 표현과 창의력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고학년은 창의력과 더불어 기술적인 표현력에 가점’을 주었습니다.





미술대회 심사



미술대회 전시회



다른 지역의 축제 현장을 보면, 상업적인 먹거리, 얼마 없는 뽀얀 체험 등으로 시민의 외면을 받기도 하지만, 평택환경축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넷_제로를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속의 동기 부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 평택환경축제는 관내 다양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의 참여로 민·관·학·기업의 협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아울러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고 함께 이끌어가는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21년 평택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향후 세부 추진계획과 평가체계 수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및 주요이해관계자 그룹과 평택시, 그리고 시민과 함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소사별**



다양한 체험코너



‘평택, 예술로 하나 되다’ 평택예술제

김소영 (사)평택예총 사무주임

평택예총은 2024년 현재 9개(미술, 사진, 연예, 국악, 음악, 문인, 무용, 연극, 영화)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평택시 지역 예술의 발전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기획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시민예술대학, 클래식음악감상, 열린 예술체험(도예물레체험), 평택예술제, 평택학생음악경연대회, 평택 꽃 나들이 등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평택예술제에 대해 소개한다. 지난 4월 27(토), 28(일), 그리고 5월 4일(토)까지 총 3일간 ‘평택, 예술로 하나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되었다. 4월 27일(토) 평택소방서 휘모리119의 신명나는 사물놀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음악협회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여 풍부하고 조화로운 음악을 선보였으며, 성악가들의 환상



2024 평택예술제 포스터

적인 음색에 귀를 땔 수 없었다.

문인협회에서는 시화 전시회와 시 낭송을 진행하였다. 시화 전시는 10명의 작가들은 시에 음보를 넣어 자작시와 유명 시인들의 시를 낭송하여 관객들에게 공감을 더해 주었다. 연예협회 초대가수들의 트로트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잊지 못할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4월 28일(일)에는 국악협회 농악분과의 경쾌한 장단의



개막식 내빈사진

사물놀이 무대를 시작으로 2024 제18회 평택예술제 개막식을 알렸다. 무용협회의 태평무 무용을 시작으로 현대무용의 멋진 무대도 볼 수 있었다. 선비의 단아함과 기개와 정취가 적절하게 안배된 남성적 무계가 느껴지는 한량무와 화려한 벨리댄스의 무대, 진쇠춤 등 다양한 춤들을 볼 수 있었다.

매해 많은 인원이 출연하는 국악협회에서는 경기민요, 서도민요, 경·서도민요를 선보였다.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는

각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민속적인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가야금 병창이 이어졌는데, 판소리 《수궁가》 중 한 대목으로,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육지로 나가는 노정기인 ‘가자어서가’ 대목을 선보였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노래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영화협회에서는 [외면]이라는 단편영화를 상영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배우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



(사)한국국악협회 평택지부 공연

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마지막 공연인 지역예술단체 퓨전국악팀인 ‘양상블 수’의 공연으로 개막식을 내렸다. 국악기(가야금, 해금)와 서양악기(첼로, 피아노, 드럼)로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은 감동을 더해 주었다.

5월 4일(토)에는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으로만 이루어졌다. 올 해 예술제에는 ‘평택시민팝스오케스트라’, ‘평택유스오케스트라’, ‘글로벌심포니오케스트라’ 세 팀의 오케스트라팀이 지원하여 이전보다는 더욱 풍



(사)대한무용협회 평택지부-현대무용 공연

부한 무대 구성을 선보였다.

지역예술단체 중 색소폰과 드럼으로 이루어진 '소울&조이' 팀이다.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올드팝과 대중음악을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였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곡들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밴드 타락'이라는 메탈 밴드는 시끄러운 '락' 음악을 연주 하지만, 이번에는 잔잔하게 어쿠스틱한 공연을 선보여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다음에 이어진 'K6 언더그라운드'의 래퍼와 DJ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어서 호응도가 더욱 높았다. 래퍼의 랩과 노래, DJ의 다양한 대중음악 믹스를 관중에게 들려주며 신나는 공연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신명나는 고고장구, 매력적인 소리의 악기로 유명한 팬플룻, 청년 예술인들로 결성된 어쿠스틱 밴드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사)한국음악협회 평택지부-오케스트라 공연



전통놀이



(사)한국문인협회 시화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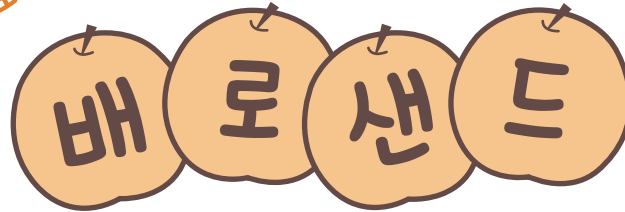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공연예술 외에도 시각 예술인 미술협회, 사진협회, 문인협회의 다양한 작품들이 평택시농업생태원 방문자센터 2층에 전시되어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

잔디밭에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한 체험부스들을 시행하였는데 굴렁쇠, 딱지치기, 윷놀이, 투호 등 온 가족들이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뿌듯했다. 이외에도 비누방울 체험, 키링 만들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2024년 평택예술제는 예술인들의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으며, 시민들에게는 예술의 다양함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었다. 평택시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한 평택예술제는 시민과 예술인이 하나가 되는 더욱 흥겹고 빛나는 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 **소사별**

평택쌀로 만든 쿠키에,
평택배로 만든 배젖이 듬뿍!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배로샌드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가면 선물로 꼭 사는 것이 있다. 바로 제주 마음샌드다. 제주 마음샌드는 제주의 특산물인 한라봉, 땅콩을 활용하여 만든 쿠키다. 2019년에 출시되었지만, 아직도 줄 서서 사는 쿠키다. 이후 가평의 잣으로 만든 맛남샌드, 강릉의 커피샌드 등이 생겼다. 샌드가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 쿠키가 아닌 행복했던 여행지에서의 추억이 담겨있는 특별함 때문이 아닐까?

이렇듯 요즘 여행지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쿠키가 유행이다. 드디어 평택에도 특산물인 평택쌀과 평택배로 만든 쿠키가 생겼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배로샌드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평택의 자량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꿈을 그리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어느 날 제주 마음샌드를 먹으며, '평택에는 왜 이런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평택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제역과 평택역에는 경주의 찰보리빵, 천안의 호두과자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는 평택의 자량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한 꿈을 그리게 됐다.

이렇게 그의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퇴근 후, 평택의 특산물인 쌀, 배를 활용한 샌드에 대한 연구를 했다. 주말에는 베이킹 클래스를 찾아가 제빵을 배우고, 그만의 배썰을 개발했다. 하루에 2~3시간의 쪽잠을 자며 연구한 결과, 지금의 배로샌드를 탄생시켜 2023년 9월에 배로샌드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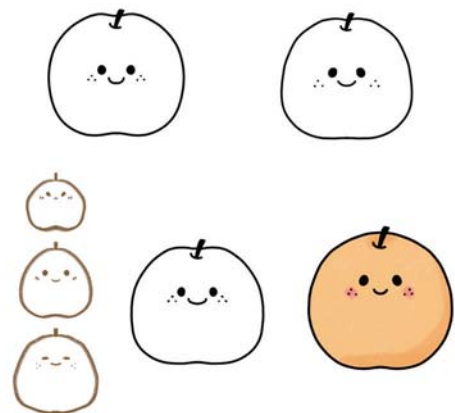
배로샌드 만드는 모습

든든한 조력자인 가족들과 함께 시작하다

그의 고향은 부산이다. 25년 넘게 부산에서 거주하셨던 부모님은 아들의 꿈을 위해 평택이란 낯선 곳으로 이주하셨다. 아버지는 만능 재주꾼으로서 전반적인 배로샌드 제조과정을 책임지신다. 동생은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대기업 디자이너다. 정보 과잉, 브랜드 포화상태인 요즘,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디자인이 필요했다. 배를 순박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배로'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아내는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배 포장처럼 그물망으로 포장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배로샌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와 함께 회의하는 모습



배로샌드 캐릭터 배로 시안(스케치)



평택역 팝업스토어 입점모습



엘지전자 VIP내방 당시 후식으로 플레이팅 된 배로샌드

평택과 배로샌드가 배로 행복해지다

그는 매장 오픈전에 평택시, 평택로컬푸드 등 지역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배로샌드를 홍보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꾸준히 소통한 결과, 평택역 팝업스토어와 AK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었고, 명절 직거래장터, 진위향교 밤나들이, 평택호 물빛축제 등 지역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지역 내 삼성전자, 엘지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주요 VIP 내방 행사에도 평택 대표 특산물 자격으로 배로샌드가 제공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 9월에는 지역특산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스타필드 안성점에도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내 고장 평택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선한 영향력 가게의 멤버로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이들도 배로샌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내 요보호아동들을 보육하는 '야곱의 집'에 매달 생일잔치용 간식으로 배로샌드를 무상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유명한 복지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한다.

더불어 그의 최종목표는 평택 배발에 복합문화공간을 오픈하는 것이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배나무를 분양해주고, 가족들이 직접 키운 배를 함께 수확하여 배잼을 만들고 그 배잼으로 배로샌드 만들기 체험을 함으로써 배로샌드 제조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미래, 실내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작품전시와 공연을 열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통해 내 고장 평택이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소사별**

평택역 팝업스토어 입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배로샌드는 코레일유통측으로부터 수원역 입점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배로샌드는 평택의 특산물이며, 배로샌드 구매를 위해 타도시 소비자분들이 평택으로 한 명이라도 더 방문해주셨으면'하는 바람으로 평택역 입점을 고집했다. 그가 얼마나 평택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배로샌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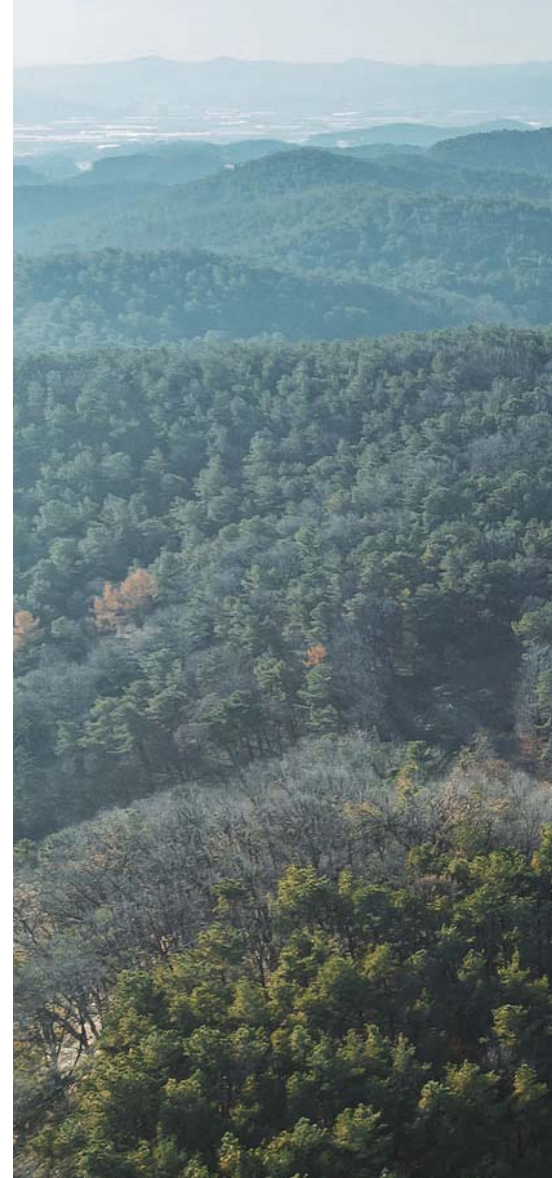
배로샌드 직원들과 함께 찍은사진

복합문화공간 트리비움 Trivium

문선희 트리비움 대표

트리비움은 하늘과 산, 물 세 가지 자연의 요소를 담아낸 온전한 휴식의 경험이 있는 치유의 공간으로 요가와 명상, 전시,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간단한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트리비움은 라틴어로 '세 가지'(트리)와 '배움(비움)'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단어들을 더 찾아보다가 '트리'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산, 물을 통해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라는 의미를 더했고 말 그대로 '비움'에서 비롯된 비우는 공간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조경 건축가인 남편과 아로마테라피스트인 아내가 만든 공간으로 자연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갖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곳을 평택 진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트리비움은 사유의 공간이 아닌 오시는 분들과 함께 채워나가는 공간입니다. 말 그대로 비워진 공간에 좋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비워낸 마음을 다시 살아갈 힘으로 채워주는 곳이죠. 그저 건축적으로 멋지게 세워진 건물의 모습보다 좋은 분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면서 만들어나가는 경험들이 트리비움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진위에 위치한 트리비움

프로필란을 보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치유의 경험을 가져가길 바란다는 저희 마음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의 프로그램은 뭐가 좋을까 고민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요가, 명상,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요소들을 떠올리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간혹 요가나 명상을 하지 않으면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편안한 머무름을 즐기다 갈 수 있도록 간단한 차를 내어드리거나 쉽게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전시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트리비움은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휴식을 통해 비워진 마음에 행복한 감정을 가득 채운 채로 공간의 문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나가시는 분들께 ‘잘 쉬셨어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럼 너무나 잘 쉬다가 간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계절이 바뀔 때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그렇게 계속



트리비움 전경

해서 찾아와 주시고 트리비움과 좋은 연을 만들어나가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공간을 시작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리비움은 공간을 비워내고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소중한 자연을 남겨두었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트리비움을 찾아와 내면의 잡념을 비워내고 그들이 잊고 지낸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마음에 남겨두는 공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공간을 기획한 의도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좋은 공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스사별**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1930 서탄초등학교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1933년 3월 서탄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기념사진, 여학생없이 남학생만 12명 졸업했다.



서탄국민학교(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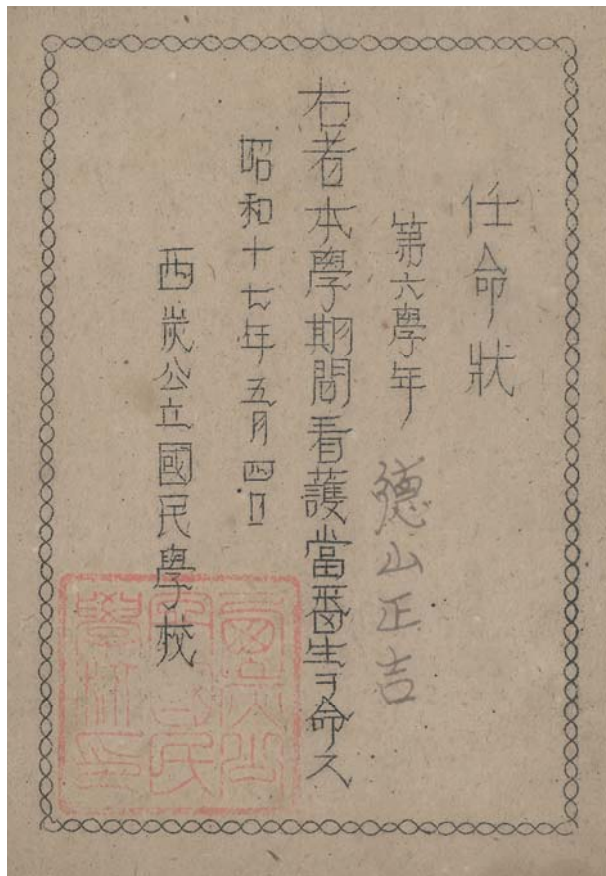


서탄초등학교 전경(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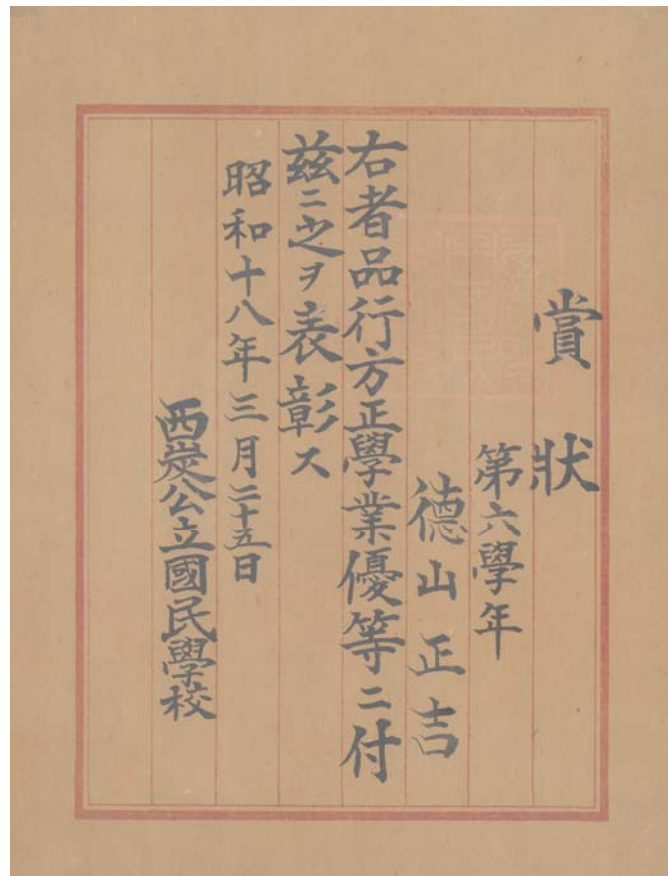
1930년 4년제 '서탄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서탄초등학교는 1933년 12명의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개교 94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제91회 졸업식까지 총 6,52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38년 '서탄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서탄공립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1942년에 6년제로 학년 연장이 됐다. 1950년 국립, 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 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탄국민학교'로 1996년 '서탄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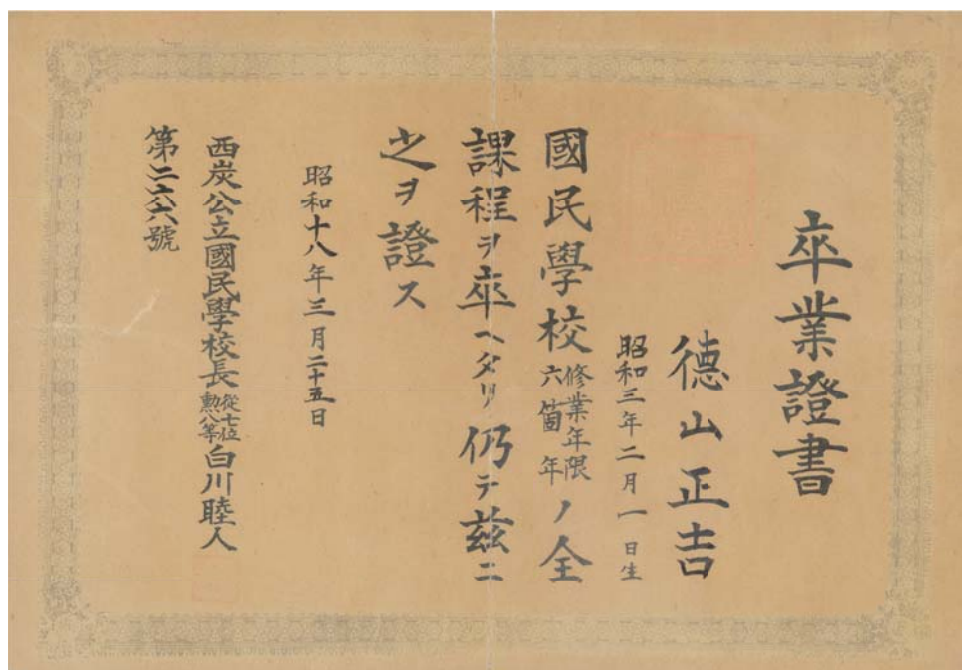
서탄면 마을조사 중에 서탄초등학교에서 발굴한 1933년 제1회 졸업사진과 1943년 제10회 졸업생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의 성적통지표와 상장을 소개한다.



6학년인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를 이번 학기동안 간호당번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1942년 5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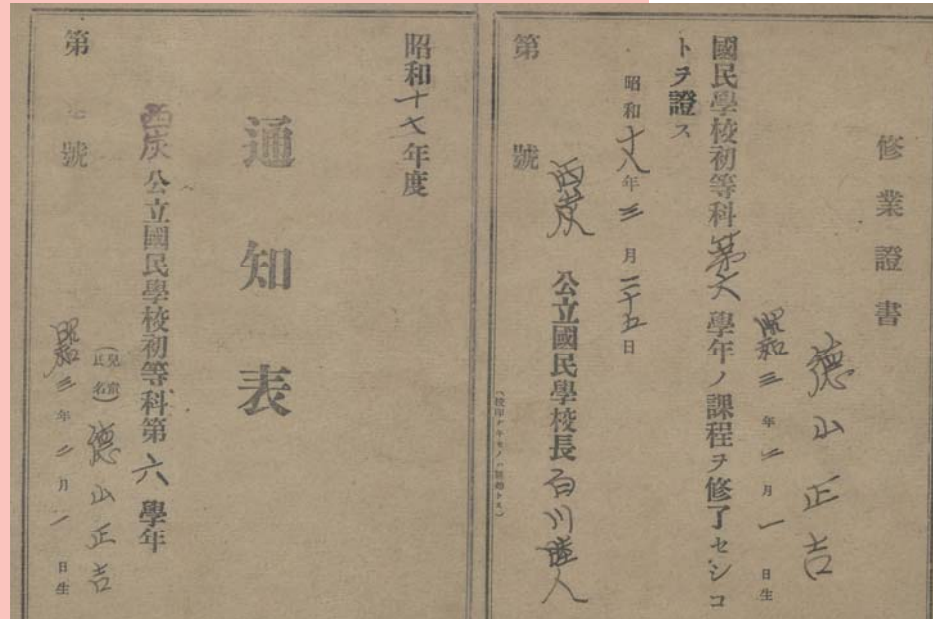
6학년인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에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등하여 표창한다는 상장(1943년 3월 25일)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가 국민학교 6학년 수업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졸업증서(1943년 3월 25일)

(徳山正吉 1928.2.1.~?)

1943년 3월 25일 남학생 49명, 여학생 15명 등 총64명이 졸업한 제10회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은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 그가 창씨개명한 조선인 학생인지, 서탄면 주재 일본인 자녀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나 6학년 통지표에 기록된 신체 상황을 보면 나이는 15세로 신장 145.7cm, 체중 35.6kg에 영양상태가 양주의로 판정된 것을 보아 조선인 학생으로 추정된다. 체육과 음악만 8점이고 전과목 10점 만점으로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었던 학생. 그의 삶이 궁금하다. **소사별**



6학년인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의 통지표로 앞면은 표지이며 뒷면은 수업증서이다.

[illegible]

6학년인 토쿠야마 쇼우키치(徳山正吉)의 통지표 내지로 성적, 출석상황, 신체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2024년 소사별단오제 참여후기 사라져가는 단오의 풍경을 재현하다

이은진 평택시 SNS시민기자단 기자

우리의 세시풍속 중 하나인 단오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2년마다 음력 5월 5일, 평택에서 '소사별단오제'가 열린답니다. 평택 대표 축제인 만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연, 경연, 먹거리까지 있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남녀노소 참여해도 재밌는 축제였어요!

2024년 소사별단오제는 6월 8일 토요일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진행되었어요. 평택시에서 주최하고, 평택문화원이 주관하는 대규모 축제였어요.



단오빔 입어보기 체험

경복궁이나 전주한옥마을에서 모두 유료로 빌려야 하는 한복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한복이 고급스러웠고, 신상 디자인이 많았습니다. 예쁘게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시민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부채 만들기 체험

부채에 그림그리는 체험뿐만 아니라 냅킨으로 원하는 문양을 붙여서 만드는 체험도 있었어요. 밖에서 파는 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더운 여름 필수품 나만의 부채를 소장할 수 있어요 :)

씨름 체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씨름체험도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어린아이들부터 여자, 남자, 외국인들까지 직접 해볼 일이 없었는데 누구나 살바를 잡고 씨름 경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는 평택시 슈퍼오닝쌀과 다양한 평택 농산물을 상품으로 증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만들기, 노리개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체험은 SNS 이벤트였어요. 소사별단오제 행사참여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 단오 디저트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었어요! 썩떡, 망개떡, 체리화채, 꽃양갱까지 달콤하고 맛있는 단오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 단오빔 입어보기



부채만들기



맛있는 단오음식 먹어보기



북총사 '두레기싸움'



시민경연마당 : 널뛰기

시민경연마당 : 농악

행사장에 들어오니 신명나는 농악소리에 흥이 났어요. 평택시민 대상으로 농악 시민경연대회 진행됐는데 평택시 내 청북읍, 고덕면, 서정동 등 11개의 읍면동이 참가했다고 해요.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져 멋진 공연을 선보이니 좋았어요!

시민경연마당 : 널뛰기

시민들이 직접 경연에 참여할 수 있는 널뛰기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해서 놀거리가 정말 많았던 축제였습니다. 역시나 평택 축제에는 평택이고 빠지지 않았고요!

시민경연마당에는 그네뛰기도 있었어요! 평택 내 그네가 설치된 곳이 팽성읍레포츠공원뿐이라

서 6월 1일 토요일에 별도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못 봐서 굉장히 아쉽네요.

평택와야골거북놀이보존회 '평택와야골거북놀이'

'평택와야골거북놀이'는 과거 평택 20여 마을에서 연행되었던 거북놀이를 발굴해 계속하고 있는 단체랍니다. 소사별단오제 마지막 날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쪽지를 거북이 등에 달아 신명 나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북총사 '두레기싸움'

전통악기 북을 연주하는 전문연주자들이 평택을 중심으로 모인 단체인 '북총사'라는 단체랍니다. 북이 무대의 중심이 되는 정통의 무대화와 창작 연희작업을 주로하고 있어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 '평택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평택농악은 웃다리 지역의 대표 농악입니다. 다양한 평택농악 공연들이 이어져 공연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공연을 보고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은 체험하면서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평택민요보존회 '평택민요'

경기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택민요보존회'는 농요와 어로요와 장례요를 보전해서 전승하는 단체입니다. 단오를 맞아 벼를 심는 모습의 노동요이자 농요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공연 전에는 시민들과 함께 줄넘기도 하면서 참여의 장도 있어

좋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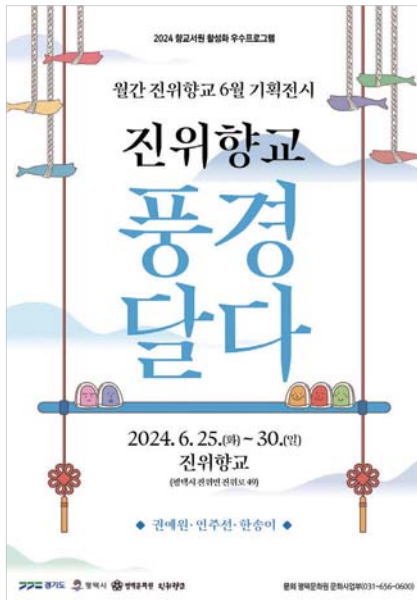
그 외에도 알록달록 다양한 종류의 풍선을 활용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풍선공연, 신기한 마술공연이 있었습니다.

미지막으로 축제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먹거리 마당에서는 비빔밥, 부추전, 어묵탕, 떡볶이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비빔밥을 먹으면 오이냉국까지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축제인 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길 체험 거리가 많아서 이를 연속으로 갔는데도 너무 재미있었던 축제였습니다. 내년에도 소사벌단오제 열리면 꼭 참여해보세요! **소사벌**

평택민요보존회 '평택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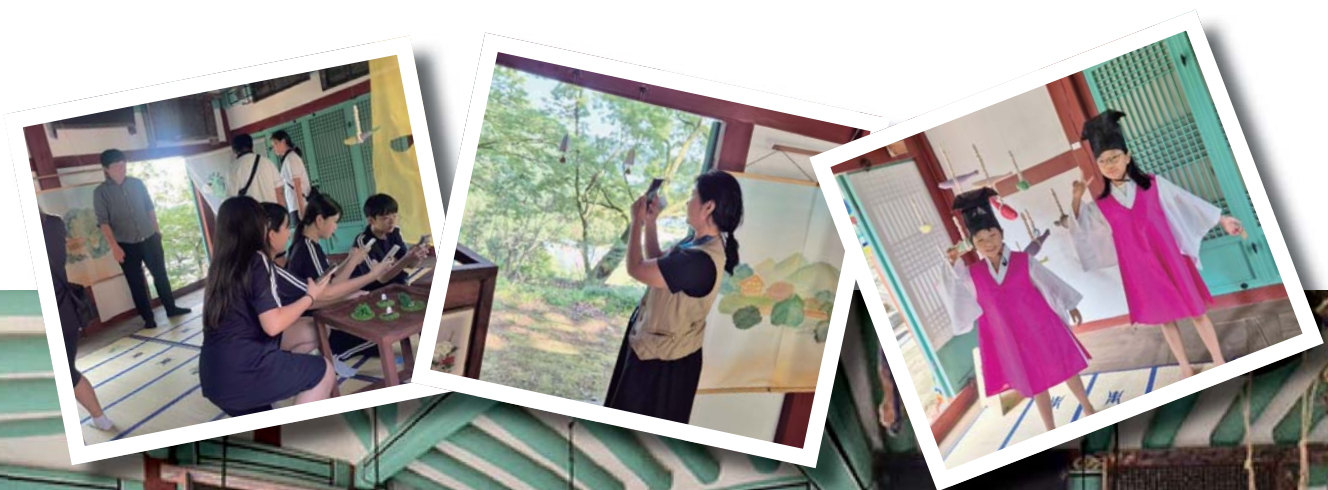
월간 진위향교 6월 기획전시

‘진위향교 풍경달다’

문화사업부

진위향교는 고려·조선시대 교육기관이자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향교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활용해 매달 ‘월간 진위향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전통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진위향교 풍경달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던 ‘명륜당(明倫堂)’에서 작품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공예를 현대적으로 접근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세 명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권예원 작가는 진위향교 이무기 설화를 바탕으로 표정골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연주선 작가는 진위향교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을 즉자형태로 표현해주었고 한송이 작가도 액막이 명태 작품을 향교에 달아 ‘진위향교 풍경달다’라는 주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작가소개



권예원 / 침선

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여 수업으로 처음 접하게 된 한복에 매료되어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좋아하며, 일상 속 상상하는 재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표정곰무-이무기 진위와 커플

표정곰무-곰무패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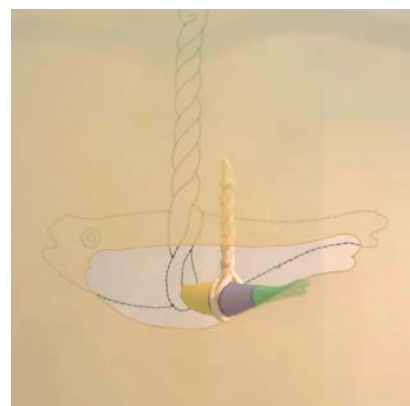


한송이 / 침선

전통소재와 기법이 현대적 감각과 어우러져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누구나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길 바라는 작품을 탐구 중입니다.



다색풍경



합



연주선 / 동양화

비단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단은 명주실로 짠 견직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우아한 빛깔이 특징인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예로부터 고급직물인 비단은 화원들의 산수화, 초상화, 화조화 등을 그려 넣는 화견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전통문화예술이 현대에도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별**



서재



외삼문과 회화나무



명륜당과 동재



진위향교

트롤리와 진화하는 평택시티투어

문화사업부

평택시티투어는 2006년 평택 문화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향토문화탐방’으로 시작한 뒤 현재 2024년까지 많은 변화를 해왔다. 연 4회 진행하던 것을 연 50여 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탐방지는 문화유산 중심이었다. 하지만 평택시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라 삼남길걷기투어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탐방지와 코스를 확대하였다.

현재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표코스를 비롯해 남부(평성), 북부(진위), 서부(물길)로 이루어진 역사코스와 농업, 미술관, 계절, 산업·환경코스로 이뤄진 테마코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의 다양한 관광, 축제, 노을, 독립운동 등의 주제로 비정기적 기획투어인 문화코스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택시티투어로 방문하는 탐방지는 30여 곳으로 평택시티투어로만으로도 평택의 대표적인 문화·역사·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 평택시티투어의 가장 큰 변화는 트롤리버스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감성을 평택으로 가져온 트롤리버스는 참가자에게 평택시티투어를 즐기는 또 하나의 포인트이다.



트롤리버스를 소개합니다



전면



후면

트롤리버스는 190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운행되던 노면전차의 모습을 재현한 한 버스이다. 평택시티투어의 트롤리버스는 천연 CNG 버스를 노란색과 주황색 바탕으로 외부를 꾸몄다. 내부는 28석으로 인테리어는 목재를 사용하고 붉은색을 바탕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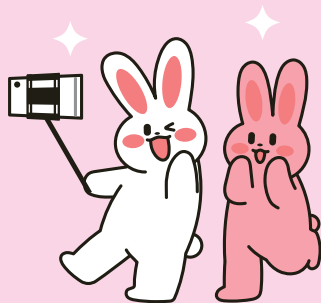
측면

문화코스 평택노을투어



1984년 제2회 MBC 창작동요제 최우수상 곡인 '노을'은 군문동에서 팽성읍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지은 가사이다. 이처럼 평택은 '노을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평택의 너른 들판과 서해는 붉은 노을을 감상하기 좋은 고장이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평택시티투어 '평택노을투어'를 기획하여 탐방하였다.

참가자의 투어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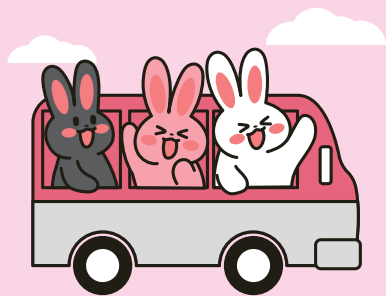
이번 평택노을투어는 평택의 아름다운 노을과 지역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노을'이라는 곡이 탄생한 배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평택이 왜 '노을의 고장'이라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의 너른 들판과 서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붉은 노을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코스를 따라가며 평택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평택의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이 탐방해보고 싶습니다.

문화코스 평택독립운동투어



평택의 3·1운동은 일제에 대해 맹렬히 저항했던 사건으로 경기 남부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1919년 3월 9일 현덕면 권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평택 전역에 들불같이 퍼졌다. 4월 1일 평택역전에서는 2천여 명이 만세운동을 펼쳤으며, 이에 호응하듯 평택의 여러 마을은 뒷산에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함께하였다. 또한, 평택은 안재홍과 원심창을 비롯해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평택시티투어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평택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해 평택독립운동투어를 진행했다.

참가자의 투어소감



이번 평택독립운동투어는 평택의 독립운동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1운동의 불씨가 평택 곳곳에 퍼진 이야기와 평택역전에서의 만세운동,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진행된 이번 투어는 평택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하며,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마음 깊이 새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소사별**

평택시 구술조사 사업 성과와 미래 토론회

3개 기관의 지속가능한 구술조사 사업 협력방안 물꼬를 트다

한정은 평택시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지난 6월 21일 배다리도서관에서 평택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안중도서관, 평택시 기록관이 함께한 2024년 평택학 토론회, ‘평택시 구술조사의 성과와 미래’가 열렸다. 평택시 기록관은 도서관 구술조사에 협업 파트너로 참여 했지만 독자적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한 것은 작년(2023년)이 처음이었다. <2024년 평택학 토론회>는 장기간의 연구 성과와 구술조사를 수행하며 지역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이 상호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 빗물이 똑똑 떨어지는 우산을 털며 도서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세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전

시되어 있었다. 도서관에서 수행한 10년의 성과물인 《오성·평택·안중을 기억하다, 기록하다》, 10권이 진열되어 있었다. 평택시 문화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50여 년의 연구 활동을 보여주는 평택시사, 사라져가는 마을조사, 마을지 등 역시 두툼하고 묵직한 지역조사 자료가 있고 기록관의 기록집, 발간 책자를 전시했다.

토론장에는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굵은 비를 뚫고 지원군이 되고자 찾아주신 참석자들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평택에서 처음으로 3개 기관이 모여 토론회를 가진 날이지만 긴장이 되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는 자리였다.

토론은 이수경 평택시 안중도서관장을 필두로 평택시 기록관의 한정은,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사의 순으로 각 기관의 구술조사의 성과와 미래를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박성복 평택학 연구소장이 임은정 인천문화재단 과장, 이대건 책마을 해리 촌장, 유선영 이천학연구소 연구원이 토론해 주셨다.

각 기관의 발표 내용은 해를 거듭하여 진행한 구술사업의 경험이 켜켜이 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안중도서관의 구술조사 사업은 2015년 《오성마을 인물백과사전》을 시작으로 10여 년 간 평택지역 어르신 생애사 인터뷰에서, 배 농사, 시장, 어업 등 초점 인터뷰, 탐방, 웹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해도 빠짐없이 진행하였다. 현재는 그간 발행한 자료의 활용을 하는 그림책, 설화집 등을 만들어 창작집을 제작하고 있다. 안중도서관의 마을사 작업은 꾸준히 진

일보 하여 인물을 통한 지역아카이브를 다시 재구성하여 출판플랫폼으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평택시 기록관은 2023년 《평택시 행정발전사: 구술로 엮은 평택시 행정사》를 발간하였다. 퇴직공무원 12명의 인터뷰와 행정 약사, 연표를 담았다. 이 구술조사 사업은 행정기록관리 기관에 잘 어울리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공무



제1발제 - 이수경 안중도서관장



제2발제-한정은 평택시 기록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제3발제- 황수근 평택문화원 학예연구사

원 구술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조직명, 사업명, 등 단어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 배경지식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기 있다. 하지만 구술 준비과정과 정리과정에서 비전문가,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 사업은 평택시 행정기관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드러낸 구술조사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다.

평택문화원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 활발한 연구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80년대부터 군지, 시지, 읍면지, 민속지 등을 발간하였고 지역 학술 조사사업으로 구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를 통해 구술조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평택문화원은 단행본 제작, 유물조사, 인물 인터뷰 등 녹취록 전문 수록과 동영상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한편, 전문 장비 및 전문가를 통해 생산한 기록물을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를 통한 연구조사, 사료조사사업이 주를 이루며 문헌조사의 보완으로써 구술조사를 진행하다가 근래에는 영상촬영을 하여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사(地域史) 복원·발굴에 관한 전문적 기획과 실천에 있어서 만형으로서 중심을 잡고 탄탄한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은정 인천문화재단 과장은 구술조사 사업의 유경험자로서 소속기관의 구술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술 과정에서 유의사항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와 활용을 위한 목적성 있는 기획의 필요성”과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차별화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총장은 “출판플랫폼의 확장, 공공기록의 한계에서 독자의 확장”을 제언했다. 이천학연구소 유선영 연구원은 평택시 세 기관의 활동이 가진 의미를 거론하여 모범사례라



토론자-임은정 인천문화재단 과장, 이대건 책마을해리 대표, 유선영 이천학연구소 연구원



구술성과 자료 전시

고 칭찬하였다. 유 연구원은 세 기관의 협력방안으로 “교차 전시, 아카이브 사업 연결,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사이버메모리 신정아 팀장은 “지역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방법이 사이버메모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들 공히 “지역 아카이브 사업에서 기관 간 협력은 평택이 최고”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연말 구술 페스티벌 개최”를 주문하였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도서관의 출판플랫폼, 문화원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 미디어의 확장, 기록관의 행정 구술사 등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결과물이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관 간 협력”이 큰 성과였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인 고민도 공유했다. 그것은 “구술조사 사업을 하면서 수집기증한 기록물, 구술조사 결과물, 2차 활용으로 생산한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함께 정보를 나눌 것인가?”였다.

평택시 구술조사의 성과와 미래 토론회는 평택시 구술사업이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넘어 일상적 공동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 시스템 구축을 모색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평택시 구술사업은 지역 아카이브를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불꽃이 대지를 태운다는 말처럼, 이번의 토론회가 평택시를 지속가능한 기록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사별**

택:澤 / 더하다



손민광_치유를 안겨준 풍경 18

한효석_Meditation-Biwako-Mediterranean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김고운 웃다리문화촌 주임

웃다리문화촌은 2024년 첫 전시로 손민광의 〈Various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과 한효석의 〈Meditation-Biwako-Mediterranean〉을 선보였다. 이 두 작가의 전시로 새해의 문을 연 것은 복합문화공간 웃다리문화촌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이 평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란 점을 눈여겨보았다.

‘지역 작가’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지역의 작가를 말한다. 예전에는 지역 작가의 정의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출생한 작가에 한해서 지역 작가로 규정했더라면 현재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으나 서울이나 해외 등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여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들이 더 많은 기

회를 찾고자 문화 예술 기반 시설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문화 예술 부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사회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 지역만의 정서와 풍습을 반영한 예술이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전시를 선보이는 등 작가를 알려서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웃다리문화촌은 2021년 전시 기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전시를 선보이며 현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그 안에는 평택 지역 작가를 소개하고 현재 평택 지역 예술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것도 상당히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웃다리문화촌에서 2022년에 총 28회, 2023년 총 26회의 전시 중 지역 작가에 대한 전시가 각 8회, 9회로 진



손민광_사람들 3_캔버스에 아크릴채색가변설치_ 2017-2019



손민광_Untitled

행됐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듯 지역 작가 전시 개최를 통해 지역의 예술이 발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2024년의 새해 첫 전시로 평택 지역 작가인 손민광, 한효석의 전시로 걸음을 내딛고자 하였다. 이들은 평택이 고향인 작가들로 그들의 내면에는 지역 특유의 사회 분위기, 환경, 정서 등이 반영되어 있고, 보다 깊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평택 지역 작가들만이 담을 수 있는 지역성이 무엇인지 다루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손민광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다양한 매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겪게 된 장소와 인물들을 수집한 뒤에 재생산하고 재배치해서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시 제목 〈Various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관점의 소통이 되길 바라며 전시를 준비하였는데, 작가의 작업 소재부터 작업물, 그것을 전시하여 선보이는 것, 그로 인해 관람자와 소통하는 것들이 관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표현한다. 즉,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인물과 장소에 대한 다양한 배경지식들이 1

손민광_치유를 안겨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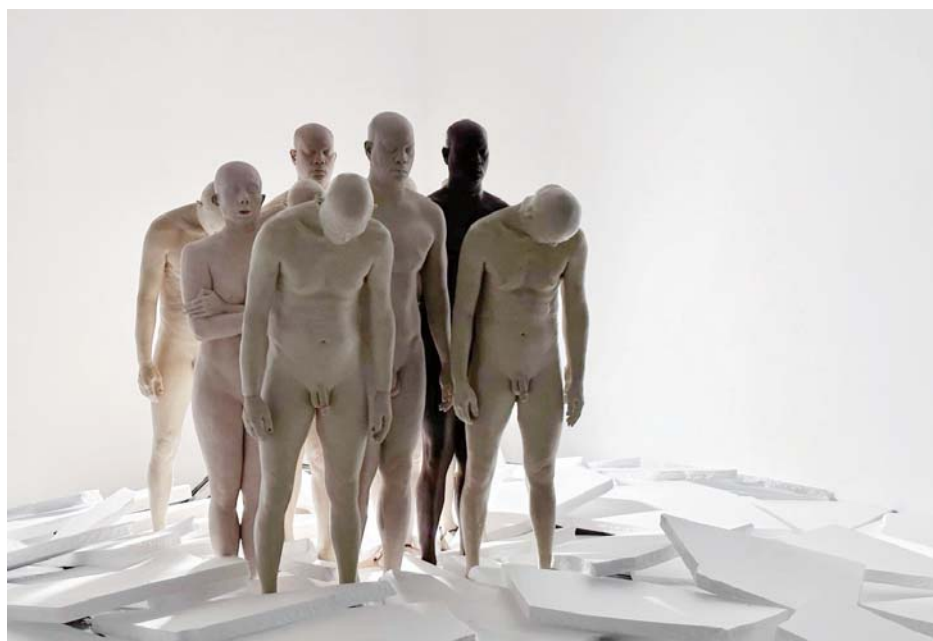
차 관점, 작가가 그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표현으로 창작한 결과물이 2차 관점, 결과물(작품)을 관람자들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3차 관점, 작가와 관람객이 전시설명 등으로 소통하며 생성되는 것이 4차 관점 등으로 다양한 관점이 생성됨을 지향하고 있다.

작가는 매번 타 지역의 인물과 장소에 대한 작업을 했으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고향인 평택으로 돌아온 뒤, 자주 거닐던 통복천을 비롯하여 안성천, 도일천, 진위천 등 평택 하천 산책로의 자연들과 그곳에서 다양한 추억과 경험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마음에 담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평면회화와 설치를 통해 담아내고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효석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인 평택에서 자란 작가이다. 미군 기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인종차별과 토지 강제수용 등 다양한 사회의 이면을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총 세 가지 주제로 기획되었는데, Biwako(일본)-Mediterranean(지중해)를 탐사하여 만든 영상작품을 통해 머릿속의 정화를 유도하고자 했으며, 자신의 심연 속으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Self',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환경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US'로 구성되었다. 작가는 무방비로 노출된 자극적인 영상과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온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으로 삶을 영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렇게 두 작가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

탕으로 작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역의 정서와 풍습을 반영하여 더 다양하고 풍부한 예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을 떠나서 특정 대도시로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예술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표준화되게 만든다. 현재 평택시의 인구는 60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문화 예술 기반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웃다리문화촌은 지역 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지역의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작가 전시 개최를 포함하여 그들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체험 등)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지원들로 인해 지역 작가가 그 기반을 옮기지 않더라도 지역 작가로서 작가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의 예술과 작가를 진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사별**



한효석_US

소／사／벌／화／보



[사유의 형태들 2024] 전시 중 이종관〈줍/픽〉작품을 보고 있는 관람객



천인안 [재봉틀 그림의 연(緣)展] 전시연계 워크숍



제19차 평택학 학술대회-평택총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2024 평택문화원 임원 워크숍-강릉단오제 선진지 답사



2024년도 평택문화원 제4차 임시총회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계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개원하였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소사별단오제
평택시 정월대보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웃다리문화촌 운영

웃다리문화촌 운영
전시기획·운영
전시관, 운동장, 세미나실 등 시설 대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평택학연구소 운영
지역사 발간 연구사업
마을조사 사업
지역사 사료 수집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유산 활용사업
평택시티투어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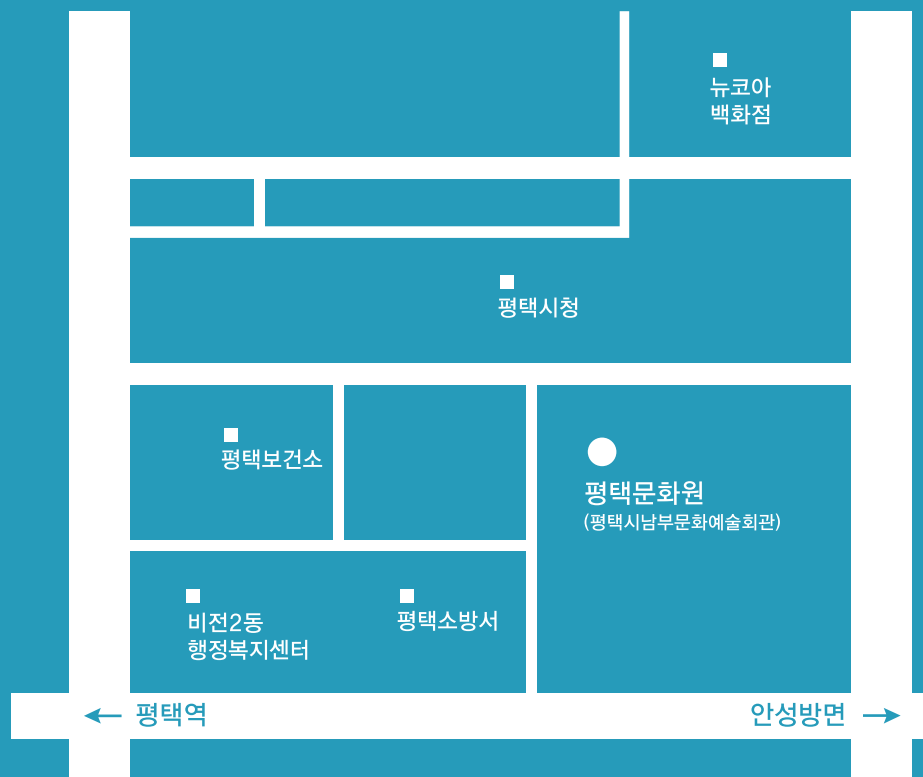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4년 3월 1일	제15대 평택문화원장 오중근 취임(재임 2024. 3. 1.~)
2021년 12월 31일	평택문화원 68주년 《평택문화원사》 발간
2021년 12월 15일	평택문화원 창립 68주년 기념식(평택시청 대회의실)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재임 2020. 3. 1.~2024. 2. 29)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상장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개원(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 장	오종근	굿모닝병원 이사	이 사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부 원 장	한상희	(주)동양툴테크 대표이사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김현주	라온누리통합교육연구소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윤기철	-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원영준	도시디자인 대표
	김종구	평택가우디미술학원장		원광혁	(주)YES네트웍스 대표
감 사	박용민	로알안경원 대표		고윤옥	평택시학원연합회장
	이충원	농업회사법인 서두물양조(주)		김병준	(주)다올ENC 대표
웃다리문화촌장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김현숙	평택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정하나	독일음악학원장
친 목 위 원 장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백은희	예술감독
운 영 위 원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김기현	(주)화담건설 대표이사
이 사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채진석	전기공사업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신영순	(주)새마을칼라 강판 관리이사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홍성숙	프리랜서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문성심	조선옷방 대표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직 원	오민영	사무국장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유연주	경영지원부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최희련	
	최창환	목화화원 대표&평택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강수진	웃다리문화촌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김고운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한규리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최치선	문화사업부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황수근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강하늘	
	유범동	캠프험프리스 수석 공보관		이기백	평택시티투어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이단비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43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5년 1월 31일(금)
- 원고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이메일 : ptmhw@naver.com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